금주의 기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바뀌고 물질문명이 발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동일함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2)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22호 2013년 2월 16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스포츠 스타=영웅" 전도에 큰 영향력!

바나리서치, 미국인 중 2/3 '크리스천 지도자보다 사회에 더 영향' 보도

단일 스포츠 이벤트로는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인 수퍼 볼에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49ers)를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 4일,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의 메르세데스 벤츠 수퍼돔에서 열린 제47회 수퍼 볼에서 형인 존 하보가 이끄는 볼티모어는 동생 짐 하보가 사령탑을 맡은 샌프란시스코를 34-31로 꺾고 12년만에 롬바르디 트로피를 안았다.

형제감독의 맞대결, 사상 초유의 정전, 팝스타 비욘세의 하프타임 공연, 한국 가수 싸이가 말춤 추는 광고 등 갖가지 화제를 양산한 가운데, 크리스천미디어 역시 스포츠 스타와 신앙 간의 상관관계를 보도해주는 등 지난주는 한마디로 슈퍼볼에 전 미국인들이 열광했다.

크리스천 스포츠 스타들은 경기장 내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때가 종종 있다. 팀 티보와 같은 유명 스포츠 스타들은 경기 중에 골을 넣거나 승리를 확정지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축구뿐 아니라 농구, 야구계에서도 독실한 기독 스포츠 선수들이 적지 않다.

그럼 소위 '기독교 국가'라 불리는 미국은 과연 어떨까. 세계 최고의 스포츠 시장을 가진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는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나리서치(Barna Research)는 스포츠 스타들이 대표적인 크리스천 리더들보다 미국사회에 더욱 큰 영향을 발휘한다고, 최근 설문 조사를 발표했다(Two-Thirds of Americans Say Pro Athletes Have More Influence on Society than Faith Leaders).

이미 미 언론은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 겸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들을 소개하며 스포츠가 선교의 좋은 도구임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기에 영합한 선수들의 일상사를 소개하거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는 유명 스포츠 스타의 인터뷰가 대종을 이뤘다.

바나리서치는 스포츠 스타들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다.

먼저 64%의 미국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프로 운동선수들이 유명한 크리스천 지도자들보다 미국사회에 더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고 동 리서치는 발표했다. 특히 1년 소득이 6만 달러 이상의 대학 졸업 백인들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정기적으로 주중에 한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4만 달러 미만의 응답자들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사회에 더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19%).

스포츠 스타들이 사회에 더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기 도중이나 끝나고 나서 또는 하프타임에 인터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공공연한 표현"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이번 슈퍼볼을 통해 우승한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전설적인 수비수 레이 루이스는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은퇴 기자회견을 할 정도이다. 주목할 점은 미식축구계에 유달리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선수들이 타 종목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61%의 미국인들은 미디어나 운동경기 중에 그러한 신앙고백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연령대로 보면 '부머스'들이 66%로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고 있고, 18세 이상의 자녀들은 둔 부모들(66%), 복음주의자들(88%) 그리고 흑인들(79%)이 운동선수들의 기도 세레모니나 감사 기도를 지지한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은 34%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이처럼 프로 운동선수들의 공공연한 신앙고백이나 천명에 관대한 이유는 바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다(40%). 그리고 11%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당연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10%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만큼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의 신앙에 별다른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경기나 인터뷰를 통해서 보거나 얻은 정보를 통해 특정 선수와 친근감을 느끼며, 그 내용과 차이가 없는 실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스타가 크리스천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하면 전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운동선수의 공공연한 신앙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개인의 신앙을 믿게 하는 부적절한 행위이기에 금지돼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45%). 그리고 운동선수는 단지 경기만 해야한다(21%)고 한계를 설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경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특정 선수의 신앙이나 고백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는 사람도 있다(10%).

그렇다면 스포츠 스타들 중에 어떠한 종목, 어떠한 스타들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팀 태보(프로 풋볼 선수): 기독교 운동선수 중에서 단연코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놀랍게도 미국인 중 무려 83%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고, 73%나 되는 사람들이 팀의 신앙고백이나 천명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커트 워너(은퇴한 프로 풋볼 선수): 59%나 되는 미국인들이 그를 알고 있고, 80%가 그의 신앙고백을 지지한다.

〈2면으로 계속〉

사 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세미나 참석을 위한"

음 악 회

본지가 주최하는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가 올해는 예루살렘에서 개최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례"를 포함하는 이번 세미나 후원을 위해 퀸즈장로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았다.

퀸즈장로교회는 "교회설립 39주년 기념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세미나 참석을 위한 음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시: 2013년 2월 24일(주일) 오후 4시
장소: 퀸즈장로교회

출연진
• Violin_이슬아
• Cello_윤지현
• Flute_윤소영
• Soprano_강혜영, 최지혜
• 퀸즈장로교회 권사합창단
• 글로리아선교중창단

가격: $20.00
티켓문의: 718.886.4040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2면
중국, 애국적 도구로 종교 활용

3면
"혼전 순결" 엄마가 직접 말하라

7면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 예수님의 발자취 (6)

9면
목회서신
김재열 목사(뉴욕중부교회)

13면
투고 칼럼
김태용 목사(한인영광교회)

시 론

부활신앙의 사람들

양춘길 목사
(뉴저지 필그림교회)

2013년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여정은 마지막 고난주간과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육신의 전쟁 뿐 아니라 영적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활의 아침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적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역시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굴러져 있었고 새벽 일찍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놀라운 천사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죽음으로 향하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사형수 중 하나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의 시신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큰 돌로 봉해졌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으나 사람들의 거짓 증언과 재판이 그를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증오가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세상의 악이 그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인류의 죄가 그로 죽음의 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면 거짓과 미움, 불의와 악에 패배한 것으로 예수의 이야기는 종지부를 찍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그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진리가 거짓보다 강함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선이 악보다 강함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강함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크고 강함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15:55-57).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진리 편에 서서 싸우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때로 힘에 겨울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 날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슬픔의 눈물은 큰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 문을 닫아걸고 숨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가슴은 큰 용기와 담대함으로 활짝 펴졌습니다. 실의에 빠져 엠마오 길로 향하던 두 제자의 절망의 발걸음은 큰 소망의 달음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평화를 선포해주시며, 동행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르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해주십니다. 그는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확신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진리와 선을 행하며,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중국, 애국적 도구로 종교 활용

오픈도어, 중국정부의 종교에 대한 우호적 태도 발표

약 60년 전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악'이라고 말했지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최근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인 유 젱셍(俞正聲)은 중국 공산당의 주요 목표는 국가의 번영이며,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종교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국 공산당은 국가를 활기 있게 하기 위한 애국적인 도구로 종교를 활용해왔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종교를 말살하기보다는 사회주의와 종교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통점을 발견하는 시도를 통해 종교와 공산주의와 연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종교 사이 갈등 최소화 공통점 발견 시도
2013년 최악기독교박해국가 37위, 전년보다 21위보다 호전

지금의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시도는 모택동 시대와는 많이 다르다. 모택동은 종교를 '유해한 독'이라고 묘사했고, 사회주의를 주창한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대중의 아편'이라고 규정했다. 1960년대 중국의 문화혁명 기간 동안 수천 명의 홍위병들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연다는 구호 아래 십자가나 불상 같은 종교 상징물은 물론, 중국의 옛 문헌들도 파괴하는 일을 자행했다.

그리고 약 10년 전 중국 지도부는 파룬공(Falun Gong)이라는 종교단체를 사회주의와 과학에 반하는 미신이라고 규정했고, 지금까지 파룬공의 신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고위층인 유 젱셍은 중국 티벳 불교 대학(Tibetan Buddhism College of China)의 고위직을 만나 티벳 불교와 사회주의 사회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을 깊게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는 또한 다른 종교 단체들도 방문해 종교가 국가를 건설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국 공산당 산하의 중국불교연맹(The Buddhist Association of China)은 최근 청두에서 집회를 열고 티벳의 반정부 운동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통해 국제 사회의 관심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중국불교연맹의 추안 인(Chuan Yin) 대표는 불교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과 살상을 반대하는 종교인데, 자살을 찬양하고 조장하는 행동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의 다른 조직은 종교단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종교단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의 고위층인 유 젱셍은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교리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신도들을 잘 계몽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연구단체 퓨 포럼은 연구조사를 통해 전체 인구가 13억 4,134만 명(2010년)인 중국에서 종교 비율은 무종교가 52.2%, 전통종교 21.9%, 불교 18.2%, 기독교 5.1%, 이슬람 1.8% 등이라고 발표했다. 2010년 개정판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는 중국 전체 인구 13억3,058만 명에서 무종교는 44.3%, 전통종교 28.5%, 불교 12.5%, 기독교 7.9% 라고 기록했다.

반면 세계 각국의 자유 상황을 연구하는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2013년 세계 자유 상황 보고서(Freedom in the World 2013)'에서 중국은 '자유롭지 않은'(Not Free) 사회라고 규정했고, 기독교 박해 상황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오픈도어스(Open Doors) 선교회는 '2013년 세계 최악의 50개 기독교 박해 국가 목록(2013 World Watch List)'에서 중국을 37위로 선정했다. 다만 중국은 2012년 순위인 21위에서 2013년 37위로 하락하며 박해 상황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1면에서 계속〉

△제레미 린(프로 농구 선수): 40%가 알고 있고, 76%가 지지 △부바 왓슨(프로 골프 선수): 40%가 알고 있고, 77%가 지지 △알버트 푸호(프로 야구 선수): 36%가 알고 있고, 81%가 지지 △클레이톤 커쇼(프로 야구 선수) 25%가 알고 있고, 78%가 지지.

미국인들이 크리스천 운동스타들에게 이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롤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경대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팀 태보와 같은 선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신앙이 하나인 삶을 경기장이나 집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공공장소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사회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복싱 역사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쌓은 무하마드 알리가 무슬림이라도 그를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미국 스포츠선교회(Athletes in Actions)는 스포츠가 선교의 좋은 도구이자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현대사회는 영웅을 찾는 사회이고 스포츠 스타는 현대사회에서 영웅이기에 이들을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는 이유는 이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스포츠 영웅을 보고 인생의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포츠 선교를 위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선교를 위해 교회공동체가 준비해야할 지혜로운 일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스포츠와 종교의 거리를 보여주는 요인들도 상당히 많다. 골프 황제로 불리는 타이거 우즈의 도덕적 타락은 성자로 불리기에는 스포츠 스타의 허상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스포츠 스타를 종교적 성자로 보는 시각은 이미 보편화돼 있다. 그들이 사생활을 포기하면서 수행하는 훈련은 종교적 '자기부인'(self-denial)과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승부의 세계에서 탁월함을 보여준 슈퍼히어로의 삶은 이미 하나의 본보기가 되면서 그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열광하는 많은 추종자, 말하자면 신도들을 거느리게 된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 편집장 마크 갈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운동선수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추종하는 신도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Christian Athletes Are Not Role Models).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천 롤 모델이 된다는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드러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이미 얻은 명성과 대중들의 인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세를 보여줄 때만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마크 갈리는 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크리스천 운동선수에게 정말 훌륭하다고 말할 때, "나는 롤 모델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이처럼 높이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서야 진정한 롤 모델이 된다고 제시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혼전 순결" 엄마가 직접 말하라

CT, "엄마의 죄책감으로 민감함 주제 피해선 안돼"

우리 모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잘못을 저지른 경험이 있다. 가령 도둑질이나 음주, 커닝처럼.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잘못을 하지 말라고 말할 권리가 있을까? 켈리 J. 마틴데일(Kelly J. Martindale)은 자신의 상처와 과거 때문에 자녀들에게 혼전 순결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말하는 것을 주저했다. 그러나 자녀의 미래를 위해 오히려 솔직하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은 크리스챠니티투데이에 실린 마틴데일의 원고 요약.

"나도 저지른 잘못,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자녀 미래 위해 솔직하게 성경적 방법으로 결단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수년 동안 고민했다. 내 아이들은 내가 결혼 전에 자신들의 아빠와 동거하고 고등학교 때 임신한 것을 안다.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칠 권리가 없다고 느꼈다.

아이 넷을 두고 두 번 이혼한 끝에 나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생을 즐기기 바란다. 내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선택이 장차 가져올 결과를 이해하도록 준비시킴으로써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 나는 집 밖의 험한 세상에 대비해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방법을 발견했다.

오랫동안 나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엄마도 했잖아요. 엄마가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칠 자격이 있나요?"하고 거부할까봐 두려웠다.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성경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고 내게 말씀하셨다(시 103:12).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내 말의 진실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까?

아이들에게 "그런데 엄마는 왜 그래?"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했던 마음을 일단 극복하고 나자, 나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잠 22:6).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예비하심을 믿으며, 내 아이들 역시 이를 깨닫길 바란다.

내 죄는 용서받았지만, 나는 과거의 내 잘못을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고생했던 시간을 들려주면서 아이들에게 죄와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가르쳤다. 그리고 큰 죄를 부르는 결정적인 선택이 어떻게 작은 죄들로부터 시작되는지도 알려주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딸 오드리가 다섯 살 때 "데이트할 때 성관계를 하죠, 그렇죠?"라고 물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고 묻는 대신, 나는 하나님은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는 결혼 전까지 성관계를 아껴두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해주었다. 아이는 성관계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시점부터 우리는 내 딸은 물론이고 장래에 아이가 결혼할 남자도 순결을 지키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

시도 때도 없이 성경을 들먹이며 강조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십대라면 더욱 그렇다. 내 아이들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거나 "급할수록 돌아가라" 등의 속담이나 격언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나중에 그런 속담들이 성경 구절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열 살 된 아들이 어둠을 무서워해서 밤에 잠들기 힘들어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함께 기도했다. 기도 후에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성경 말씀을 나눴다(히 13:5). 시간이 걸렸지만 그 말씀이 아들의 가슴에 새겨지자 아이는 다시 잠을 잘 잘 수 있었다.

행복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사심 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는 커다란 보상이 따른다. 내 아이들은 이웃 노인들을 위해 눈을 치우고, 양로원을 방문하고, 내가 미혼모나 아픈 이웃을 위해 집안청소 하는 것을 돕는다. 사실 아이들에게 자기 방을 치우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돕게 하는 것이 훨씬 쉽다! 미혼모 센터와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잘못된 행동에 따른 결과는 잘못을 저지른 장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내 아이들은 내가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은 까닭에 고통 받고 있다. 나는 혼전 성관계로 인해 임신했고, 결혼했지만 결국 이혼했다. 지금 내 아이들은 아버지의 부재로 고통을 받는다. 어린 두 아이는 다른 지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기 오빠들을 볼 수 없다. 또한 아버지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 없이 궁핍하게 지내야 한다.

내 아이들은 엄마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가 자신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다. 나는 이것이 아이들이 혼전 순결을 포함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가족의 이런 무분별한 행동을 답습하지 않기 바란다.

위의 지침들을 따르면 아이들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장담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도구를 제공해준다.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부모는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나는 바른 인격의 씨앗을 심고, 그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실 이는 하나님임을 믿을 뿐이다. 내 과거의 잘못이 어떠했든지 말이다.

PSALMS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인생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삽시다

(시 85편)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실 때 먼저 지배하고 있는 바로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지배 하에서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가 항복하고 자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가 항복하고 자유하게 된 사실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권세에서 해방된 것은 스스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자유하게 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그를 괴롭히는 주인들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권세에서 벗어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았을지라도 그 사실을 듣지 못하면 그 상태로 있게 되고 그 지배하에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혀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생각에 포로가 되고 사망의 생각이 주는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비록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그 생각은 사망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자께서 해방의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었다고 해서 자유함을 누림은 아닙니다. 비록 들었을지라도 생각은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실제적으로는 자유를 받지 않음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해방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어야 합니다. 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자유함이 아닙니다. 이제 그 생각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사망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어서 나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유를 받은 자이기에 내가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내 발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그 환경에서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덤의 문을 열어주셨고 나오라고 부르시고 계시지만 사망의 생각으로 고통하면서 그것을 즐기며 품고 있으면 떠나지 못하는 이상한 영적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사망에서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알고 내가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맛을 보게 되고 자유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목회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영적 현상입니다. 비록 우리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나 자신이 사망의 생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십자가로 인하여 받은 자유를 받을 줄 알아야 하고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망의 생각에서 내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므로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말씀이 없으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정확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차가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내 생각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말씀 따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이가 내 삶의 목자이십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의 생각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장래를 바라보고,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가운데 살면서 말씀을 불신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자연이 전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어야지요? 그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살면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호흡이 마칠 때까지 일평생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의 꼬리를 물고 살지 말고 아버지를 믿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자녀들이 확실히 믿고 삽시다.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쌍꺼풀 수술

유난스레 일등을 좋아하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성형 수술 세계 1등의 자리에 올랐다. 다른 부분에 1등이라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아름다워 지고 싶어 하는 마음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으랴?

오래전 일이다. 우리교회에 신혼부부가 있었다. 아내는 예쁜데 쌍꺼풀이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소원했지만 그 때는 엄마가 완강하게 반대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것이 자신만의 스트레스였기에 남편에게 계속 수술해달라고 베갯머리송사를 했다. 신혼 시절의 사랑하는 아내의 베갯머리송사를 이길 수 있는 신랑이 그 어디 있을까?

결국 허락 받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그런데 이날따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걸작으로 지어주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 작품에 덧칠하지 말라는 설교 예화가 있었다고 한다. 부부는 설교를 듣고 수술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보다고 무기한 연기하기로 잠정 합의를 보았다. 특히 남편은 한없는 은혜(?)를 받았고....

그 후 우연히 나폴리 근교에서 열린 작은 콩쿠르에 가서 3등에 입상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의 배려로 스위스 극장에 나비부인으로 출연하게 되었다.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 연주를 했고, 그 후 나비부인으로 잘나가는 소프라노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성악가들의 로망인 정명훈 선생의 지휘로 장님가수 보첼리, 그리고 조수미 씨와 함께 일본과 한국의 공연도 할 수 있었고.... 하루아침에 잘 나가는 성악가가 되었다.

그녀는 이처럼 잘나가게 된 자신에 대해 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왜 나일까? 왜 심사위원장인 독일 극장의 극장장은 나를 추천해주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독일에 연주를 갔다가 우연히 그 극장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았다.

"마에스트로, 왜 나를 스위스 극장에 추천했나요?"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네 눈 때문이다!" "예? 눈 때문이라니요?"

"나비부인은 동양인으로 쌍꺼풀이 없는 성악가여야 하는데 서양인을 화장으로 쌍꺼풀을 지워 그 역을 대신하게 했다. 그 일은 관중을 속이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동양의 소프라노를 만나서 그 역을 맡게 하겠다고 다짐하던 중 너를 만난거야. 난 비로소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된 거야. 요즈음 잘하고 있겠지?"

오, 나의 토실한 눈이여! 온통 복으로 도톰한 나의 눈이여!

푸/ 른/ 초/ 장

이 종 용 목사
(코너스톤교회)

아브람과 롯
창세기 13:5-18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았는가? 진실된 삶을 혹 거짓된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현재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한주일 동안 믿음의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에게 내가 희생적인 양보 예수님의 양보를 하는 삶 살았는가? 직장, 사회, 비즈니스 등등 나를 아프게 상처,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위해 상처받아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진실 되게 축복의 기도, 중보의 기도 해보았는가? 거짓된 말이 아닌 진실된 말을 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난 한 주간 믿음 생활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이다. 오늘 아브람과 롯의 삶을 통해 나 자신을 분별하는 시간 갖자.

야고보서 2장에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밖의 생활 삶 속에서 표현, 증명 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과의 기도, 예배, 헌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나타나느냐가 어려운 것이다. 사실 성경적인 진실된 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한 진실한 헌금… 이 모든 것 속에서 진실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랑, 감사가 없다면 겉모습일 뿐이다.

바울은 롬7:15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 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롬7: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고백하고 있다. 위대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절규하다가 25절에서 감사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1. 아브람의 약점

창12:13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 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창20:2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거짓말 한 이유는 아내 사래가 너무 이뻐 아내를 빼앗고 자기는 죽일까봐 두려워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 속여 말한 것이 두 번 나온다. 물론 동생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내인 것이다.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연약한 모습이 볼 수 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며 생존경쟁에 시달리다 보면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때 많다. 얼떨결에 급해서 거짓말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마음의 고통이 오는 것, 괴로움이 오는 것, 아픔이 오는 것이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미쁘시어서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한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축복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한다. 정직은 참 능력이다. 축복이다. 정직해야만 회개할 수 있다.

정직은 귀한 재산이다. 축복의 문이다.

2. 아브라함의 장점

아브라함이 비록 거짓말을 두 번 하고 약점이 있지만 우리가 존경, 칭찬, 따라가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창12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네가 좋아하던 세상 것 다 놓고, 친척, 가족, 다 놓고 고향땅을 떠나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 조카 롯과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알지 못하는 목적지로 떠나는 장면이다. 그때 그의 나이 75세이다. 창13장에 보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순종했던 아브람에게 물질의 풍요의 축복을 주셨다. 그 당시의 재산은 소떼, 양떼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물만 보면 푸른 초장만 보면 서로 차지하려 싸우는 것이다. 물질의 축복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버렸다. 진정한 행복은 평화는 물질이 아니고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싸움을 중재하는 자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보여주었는지 볼 수 있다.

창13:8-9,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그리스도인).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아 너와 나는 혈육이 아니냐?(한 지체) 우리 이민가는 길인데(천국) 둘이 힘을 합쳐도 힘들 텐데 싸워서 되겠는가?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말한다.

여기까지는 우리들도 잘한다. 그 다음 보자. "네가 한번 둘러보라, 네가 좋은 땅을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택하고 나머지 내가 택하리라." 이것이 신앙의 인격이다. 아무리 믿음 믿음해도 그 믿음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덕이 안 된다. 그가 삼촌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 먼저 가질 수 있었지만 두 가정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 하나님께 공헌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 이런 신앙의 인격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3.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볼 수 없을 만큼 죄악으로 꽉 차 있었다. 하나님은 유황불로 없애리라는 결정을 하신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라.

"하나님 안됩니다, 거기에 죄 없는 사람도 많고, 어린 백성도 많은데 어떻게 죄인과 같이 멸망시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하고 창18:23-25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창18: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라며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애원 기도하는 모습 나온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다.

말로만 예수 믿는 것, 믿음 좋다고 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미덕을 배우자. 내가 먼저 악을 행한 그에게 선을 보여줄 수 없겠는가? 내가 먼저 내게 해를 준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증보기도 할 수는 없겠는가?

우리 주님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온 피와 물을 쏟으시며 고통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신다. 자신을 죽이는 군인들을 위해, 비웃는 무리들을 위해 말씀하신다. 눅23: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우리들 각자 자신들을 위해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한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1주년 감사 기도성회

| 일시 : 2013년 2월 14일(목, 저녁) ~ 21일(목, 저녁)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818) 306-4912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KWMA 운영이사/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2013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기도성회모습(예루살렘성전, 가나안성전 및 부속건물)

조성근 목사 성회 일정

2013 기도성회

1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일	~ 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3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4일	~ 5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
6일	~ 8일	한광교회(차은일목사)
11일	~ 13일	청파중앙교회(김항우목사)
13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7일~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7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27일	~ 30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2

2일		횃불교회(임숙희목사)
2일		영원교회(리승철목사)
4일	~ 7일	GST 30차 신학생훈련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4일	~ 23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27일	화평교회(이재옥목사)

3

3일	~ 6일	창일교회(박여호수아목사)
10일		순복음삼마교회(이일성목사)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4일	~ 23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 26일	신남교회(김봉현목사)
31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012 기도성회

7

1일		드림교회(장순직 목사)
3일		서울남노회(통합) 항존직세미나
9일	~ 12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3일		한반도 회복 기도회
19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 기도원(미국)
29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30일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8

1일	~ 2일	갈멜산금식기도원
6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7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종진 목사)
13일	~ 16일	GST 29차 신학생 여름훈련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6일	~ 29일	수원제이교회(이영호 목사)

9

5일		순복음삼마교회(이일성목사)
9일		한국중앙침례교회(한기룡목사)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16일	~ 19일	일심교회(김교문목사)
20일	~ 29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

1일	~ 4일	갈멜산금식기도원
8일	~ 10일	동광제일교회(김순갑목사)
11일		칼빈대학교 채플
12일		만나교회(김병삼목사)
15일	~ 18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
18일	~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8일~	30일	인천제이교회(이건영목사)

11

1일	~ 3일	만리현교회 (이형로목사)
4일	~ 6일	전주성복교회 (이창남목사)
11일		수원은혜교회 (황유석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5일	~ 2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 (GST)
26일	~ 28일	예일교회(김윤중목사)

12

2일	~ 4일	해성교회(한영승목사)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3일	~ 22일	LA미주 갈멜산기도원 (GST 미국 미션 리서치)
24일	~25일	갈멜산금식기도원
30일		신학생철야 송년의 밤(GST)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 예배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예수의 아내' 복음서 논쟁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지난 9월 뉴욕타임스에 보도되면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하바드신학대학원의 세계적인 학자인 Karen L King교수의 논문이 2013년 1월 Harvard Theological Review에 기재되지 못하고 빠졌다. 팍스의 Joshua Rhett Miller에 따르면 킹 교수는 4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파피루스 조각에서 예수님의 아내에 대한 표현이 있음을 발표했었다. 그녀는 이것은 '예수의 아내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예수님이 아내를 가졌을 것이라는 가설들에 대한 최초의 인용이라고 했었다.

킹 교수는 지난해 9월 로마에서 이집트의 콥틱교회 연구세미나에서 기독교 초기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결혼했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킹 교수가 사용한 유물의 진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해왔다.

Hershel Shanks는 Biblical Archeology Review에 기고한 글에서 하버드신학교의 처사에 항의를 했다. 하지만 진정논문이 누락된 이유는 이미 두 명의 전문가가 그것이 고대의 4세기경의 유물이었다고 인정했음에도 그 파피루스 조각의 진정성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었던 것 같다. 킹 교수는 하바드신학대학원의 초대교회사 교수로서 자신이 해독한 파피루스에서 예수님이 결혼한 것으로 믿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었다. 논란이 되는 표현은 고대 이집트 언어인 캅틱어로 기록된 파피루스 조각에 "내 아내..."라는 말이 나온다. 또한 "내 어머니" "내 제자"라는 말도 함께 나온다. 그녀는 파피루스를 해석하기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내 아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이와 비슷한 주장들이 신문과 미디어를 장식하곤 했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댄 브라운의 다빈치코드와 비슷한 소설들에서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었다. 사실과 허위가 적절하게 배합된 이런 주장은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다.

물론 킹 교수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킹 교수는 파피루스는 사실 예수님에게 아내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수님이 아내가 있었는가에 대한 역사적으로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다만 초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결혼하시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다.

이 발표에 대한 반발은 물론 매우 크다. 영국의 서폭대학교의 archaeological heritage의 교수인 David Gill은 골동품 거래를 깊이 관여해온 전문가이다. 이 파피루스가 진품인가 라는 질문에 현대판 정교한 위조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하바드대의 Kathryn Dodgson는 파피루스가 진품인지를 따지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콥틱언어연구의 전문가인 Wolf-Peter Funk는 킹 교수의 파피루스의 진실성 여부는 밝혀질 가능성이 없다고 AP뉴스에 말했다. 사실 이 파피루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많다. 고고학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채워야 할 빈칸들이 너무도 많다. 킹 교수의 명함크기(1.5" x 3") 파피루스 조각은 어디에서 왔는지, 문장의 앞뒤에 어떤 문맥이 있었는지, 누구의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발굴되었는지, 함께 발굴될 다른 소장물들은 무엇인지, 그것들이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어느 연대의 유물들인지, 수많은 질문들이 제기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체 책이 아니고 한 조각 극히 작은 부분이다. 퀘벡 라발대학의 Nag Hammadi Coptic Library의 공동설립자인 Funk교수는 "별의 별, 미친 것들이 포함된 파피루스 조각은 수 천개가 넘는다"고 했다. 바티칸은 이 파피루스는 조작물이라고 발표했다. 이 유물이 발견된 경로도 문제이다. 이 조각은 구입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한 시장에서 구입했다고 한다.

Ashbury 신학교의 Dr. Ben Witherington은 이 유물이 킹 교수가 주장하는 2세기의 것이 아니라 3세기말 혹은 4세기의 파피루스로 추정한다. 신약성경이 쓰여진 1세기의 언어는 헬라어였다. 이 유물은 남부 이집트의 콥틱으로 쓰여졌다. 1세기의 언어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고고학적인 위치를 증거해줄 고고학적 출처Archeological Provenance가 없다.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사회적인 배경을 알 수가 없다. 신뢰할 수 없는 증명되지 않은 자료인 것이다.

많은 학자들의 동의하는 확실한 것은 이것 또한 영지주의 문서라는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단으로서 4세기에 극을 이루었다. 영지주의자들은 역사적 예수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영광을 입으신 예수만 관심이 있었다. 또한 그들은 역사적 예수의 결혼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설사 파피루스가 '부인'에 대하여 말할찌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 확대해석하고 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단자인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내가 있었다고 믿었을까? 그것도 또한 아니다. Witherington 교수는 영지주의자들을 금욕주의자로 구분한다. 그들의 신학은 금욕주의이다. 또한 예수의 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인, 아내wife라는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의 수도사들은 여자 수도사들과 함께 다니기도 했었다. 남자 수도사들을 돕고,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잔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고 동생-아내 sister-wife라고 불렀다. Sister-wife는 우리가 말하는 부인이 아니다. 부인처럼 도와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물론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면 예수 공동체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어찌하든지 이 파피루스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는 모른다. 단순히 던져진 말들을 가지고 말을 만들기에는 그 빈칸이 너무도 크다. 그리고 이 말들을 억지로 연결하려고 한다면 소설이 될 것이다. 물론 다빈치코드는 이보다 훨씬 더 나간다. 다빈치코드에서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그리고 그 후손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소설이다. 물론 신약은 이런 가설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코드나 다른 비슷한 소설들은 도마의 복음서,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 등의 4세기 영지문서를 확대하여 해석하면서 전통적인 성경관을 뒤엎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1948년의 쿰란지역에서 발굴된 수많은 양의 사해문서는 성경에 대한 많은 의혹과 가설들과 의심의 생각들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잘 보존된 놀라운 말씀인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반대로 비슷한 즈음에 상당수의 영지주의문서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손상을 시키려는 사단의 '맞불작전'과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의 진정성과 권위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조금도 손상당하지 않았다.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을 말살하려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지금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인류에게 빛과 소망을 주고 있다.

만약에 그들의 열심을 다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결혼했다면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면 성경을 분명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랍오니, 나의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는 가르치시는 교사와 여제자의 관계이다. 부활하신 구세주 주님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는 여제자의 관계이다.

이 파피루스가 진정한 유물이고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였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들이기 때문이다. 킹 교수의 논문이 하버드신학지에 발표될 수 있을런지 땅에 묻힐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버드신학교에서 모처럼 바른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저널리즘이 곧장 드러내는 선정적인 sensationalism이 아닌 학문적인 진정성을 추구한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

이 논문이 발표되든지 발표되지 않던지, 아니 이보다 더한 다른 논문이 나오든지, 또 성경의 역사성을 뒤엎으려는 또 다른 유물이 발표되든지 간에 성경의 역사성과 확실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대한 도전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그러했듯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하는 또 다른 예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이민자인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미국에 와서 성공하려면 그 롤 모델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요셉에게서 찾는데 특히 요셉의 어떤 면이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에 필요한지요.
-나성에서 김요셉

A: 지난해 4월 초에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서 "한국은 왜 강한가?"란 제목으로 특집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일본에 형편없이 뒤처져 있던 한국이 요즘은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면서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루면서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는 한국인들이 지니는 특유한 헝그리 정신(Hungry Spirit)입니다. 가난을 이기고 잘 살아보자는 헝그리 정신을 기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Can Do Spirit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정신입니다. 둘째는 한국이 좁은 국내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려는 세계화 정신(Globalism)입니다. 경제학에 의하면 한 나라가 자립경제를 이루려면 인구가 1억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인구가 1억3천만이어서 기본경제규모가 되지만 한국은 5천만이어서 자립경제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정책을 세워 이점이 한국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국인들이 어느 곳 어떤 처지에서도 잘 적응하는 유연성(Flexibility)입니다. 한국인들은 사고(思考)와 행동이 유연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적응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한국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한국 사람들은 이 미국에 와서도 고난을 잘 이기고 사업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세우고 선교도 잘합니다.

탁월한 환경적응력과 최선 다하는 살도록

특히 요셉은 우리의 2세 자녀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요셉 신앙의 특징은 정말 유연성이 좋습니다. 정말 무섭고 숨 막히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잘 참고 적응하는 요셉의 유연성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고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의 삶과 감옥에서의 삶,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는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삶인데 너무나 유연하게 요셉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은 어려울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요셉의 특징은 특히 환경적응력이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잘 적응을 했습니다.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일도 잘 감당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잘 감당했습니다. 감옥의 제반업무가 맡겨지자 그 일도 탁월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환경이든지 1)No complaining(입술에 불평이 없다) 2)Do his best(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함)입니다. 실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환경에 잘 적응해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인 감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죄수의 신분이 됐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자기를 이 지경으로 만든 보디발의 부인을 저주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망이나 불평, 신세타령을 했다는 것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환경을 섬겼습니다.

백합화가 바람이 불어 그 잎이 가시나무에 찔려 찢어지면 꽃은 아프지만 더욱 진한 백합의 의 향기를 발한다고 합니다. 유유히 흐르는 물은 절벽을 만나야 나이아가라와 같은 폭포의 장관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역경을 만나야 성도의 참모습과 진가를 드러내는데 요셉이 바로 그렇습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48 Hour Program
-60 Hour Program

On Campus Courses

2013봄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1-15(2월 11 -15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Roger Peugh

Feb 18-22 (2월 18-22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A Session(Jan 7-Mar 1: 1월 7일-3월 1일)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B Session(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DI852 World Religion(세계종교)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Bangkok, Thailand
- Jan 7-11 (1월 7- 11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Jan 14-18 (1월 14- 18일)
DI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Los Angeles, CA
- March 11-15(3월 11 - 15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Manila, Philippine
- April 15-19(4월 15 - 19일)
PM 804 Philosophy of Ministry(목회철학)

Korea
- April 22-26(4월 22 - 26일)
DI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감티(Gamti)

감티족은 주로 인도의 구자라트 지역과 수라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브힐족의 언어 가운데 "감타(gamta)" 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으로써 다른 원시부족에 비해 우수한 민족임을 나타낸다. 감타족은 엄격한 부족사회로써 자신들을 브힐족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민족으로 여긴다. 감타족어는 브힐어에 속한다.

오래전 구자라트 지방의 번영은 주변 이슬람 부족이 오랜 동안 지역을 침범케 하는 원인이 됐다. 세력을 강하게 성장시킨 이슬람왕조는 구자라트 지역의 모갈왕조를 점령했으며 13세기 구자라트 왕국은 멸망했다. 그러나 모갈왕조는 구자라트 지역에 그들의 다른 왕국을 건설했다. 구자라트 지역에서 부족들 간의 전쟁이 치열할 때 1817년 세력을 성장시킨 영국 왕실은 그곳의 부족들을 개종시키려 했고 힌두교 부족들은 식민지의 농업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삶의 모습

감티 지역에서 브힐족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다. 도디아족과 감티족은 다른 이민족과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하리족이나 근친 외 결혼은 허용된다. 남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한 명 이상의 배우자를 얻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어릴 때 값을 주고 팔려가게 된다. 결혼식도 남자들 위주로 치러진다. 만일 결혼을 원하는 젊은 남녀가 신부를 사올 수 없을 때 신부와 신랑은 서로 합의해 신부를 납치하는데 몇 달이 지난 후 집으로 돌아오면 결혼 허락을 얻게 된다.

감티족과 조하리족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이지만 감티족의 전통이 더 잘 보전돼있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한 개의 갈비뼈"라는 말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다. 감티족은 조하리족과는 달리 부족의 축제에서 연극공연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부족의 축제에서는 다양한 축가를 부르며 축제를 즐긴다. 도디아족의 여자들은 구슬과 동전으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착용하고 감티족의 여성들은 조개껍질을 엮어 만든 목걸이를 착용한다.

대부분의 감티족은 그들의 조상이 농민으로 정착한 이래 유목민 생활을 접었다. 기름지고 비옥한 토양과 품질이 우수한 면화로 잘 알려진 수라트의 동부 우거진 삼림지역에서 그들의 생활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다. 거주지의 풍부한 강수량을 이용해 쌀을 경작하며 나무를 베고 사냥과 어업을 해 도시와 교역을 하기도 한다.

감티족 가운데 족장은 마을의 지도자다. 가옥들은 강 주변에 넓게 흩어져서 식수를 얻고 어업과 목축을 한다. 가옥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부들을 고용하여 짓게 되는데 작은 오두막에 대나무를 엮어서 지붕을 올린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자신이 직접 지은 진흙 오두막에서 산다. 주목할 만한 한 가지는 감티족은 모두 강의 맞은편에서 거주한다는 것이다. 다른 브힐족과는 다르게 감티족의 대부분은 고등교육이나 대학교육을 받았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이 알코올중독자다.

신앙

거의 100%에 이르는 감티족의 종교는 애니미즘과 조상숭배다. 돌로 만든 비석을 세워 죽은 사람을 기념하며 악마나 귀신 숭배에 사로잡혀 아주 깊은 미신 속에서 살고 있다. 악어를 신성하게 여기며 엉성하게 나무나 돌로 신들을 만들어 제사하며 나무 밑은 신령이 깃든 곳이라고 믿는다. 감티족에게는 의식을 거행하는 사원이 없다.

필요로 하는 것들

감티족이 진실을 깨닫도록 이끌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국제로잔운동 새총재에 한국계 목사

42세의 한국계 미국인이 전 세계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고 있는 국제로잔운동(Lausanne Movement)의 새 총재 겸 이사장에 지명됐다. 국제로잔운동은 5일 성명을 통해 2004년부터 로잔운동을 이끌어 온 덕 버드셀 총재 후임에 일본의 그리스도성서신학교 학장인 마이클 오(한국명 오영석·사진) 목사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버드셀 총재는 미국성서공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오 신임총재는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국제로잔운동을 이끌게 된다.

로잔운동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 등의 주도로 탄생됐다. 2010년 10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에는 전 세계 198개국에서 4200여명의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 복음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로잔전략위원회 위원인 유승관 목사는 "복음주의권의 유엔이라고 할 수 있는 로잔운동이 40대 초반의 한인을 새 수장으로 선택했다는 자체가 놀라운 뉴스"라면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 운동이 서구 중심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권 중심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오 신임총재는 명문 하버드대와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시카고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교육학과 인류학, 과학, 신학 등 다방면에 걸친 전문가로 2004년부터 로잔운동에 참여했다. 2006년에는 로잔의 '영리더 그룹'의 지도자로 부상했고 2007년부터 로잔 이사회 멤버로 활동했다. 오 신임총재는 앞으로도 나고야에 본부를 둔 신학교 사역을 병행하면서 로잔운동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하는 버드셀 총재는 "마이클오 신임총재는 문화를 뛰어넘어 세계 교회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그의 지도력 아래 로잔운동은 더 젊고, 더 강해지고, 지구촌 교회들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신임총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 등 영적 거성들의 유산이 담긴 이 로잔운동을 이끌게 됐다는데 깊은 소명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전 세계 기독교권의 젊은 리더들과 연대를 통해 복음주의 운동 확산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로잔 신학위원인 최형근 서울신대 교수는 "로잔운동 총재직은 국제 기독교기관 가운데 한인이 맡은 가장 권위 있는 고위직으로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위상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중심축이 제3세계와 새로운 세대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교황, 28일 전격 퇴위

교황 베네딕토 16세(85세)가 이달 28일 퇴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2005년 4월 19일 78세의 나이로 265대 교황에 선출돼 즉위한 지 7년 10개월 만이다.

교황은 11일 성명을 통해 "오는 28일 오후 8시에 퇴위한다"고 발표했다. 교황은 "신 앞에서 나의 양심을 거듭 성찰한 결과 고령으로 내 기력이 더는 교황직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퇴위 결심 이유를 밝혔다. 교황은 "이 일(교황 퇴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교황직에서 퇴위한다는 것을 완전한 자유의지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교회법은 교황의 자유의지에 따른 퇴위를 인정하고 있다. 베네딕토 16세는 "앞으로도 평생을 헌신하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이날 오전 추기경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결정을 알렸다. 베네딕토 16세가 퇴위하면 1415년 그레고리오 12세가 퇴위한 이래 598년 만에 처음으로 선종에 앞서 퇴위한 교황이 된다.

차기 교황은 3월 말 선출될 예정이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베네딕토 16세 퇴위한 날로부터 15-20일 이내에 열릴 것이며 "부활절(내달 31일) 이전에는 새 교황이 즉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롬바르디 대변인은 베네딕토 16세가 콘클라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퇴위 직후 로마 근처의 여름 별장에서 지내다 바티칸 내 수도원에서 지낼 것이라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베네딕토 16세는 재직 중 사제들의 과거 아동 성추행 추문 탓에 여러 차례 사과하는 등 곤란을 겪었다.

민주·공화, '총기규제법' 공동 발의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5일 '총기불법 거래자(straw purchasers)'에 대한 단속강화를 공동 발의했다. 발의된 '2013 총기거래 예방책'은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유권을 보장하되 철저한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경찰과 사법부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여러 총기규제법 중 처음으로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안은 총기거래 시 구매자와 판매자는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 때 징역 20년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화당 스콧 리젤 의원은 "이 상식적인 법은 양당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는 공통분모를 찾은 후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엘리자 거밍스 의원도 "샌디훅 참사 같은 상황에서 무력해질 것을 우려하는 총기규제 회의론자를 설득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법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 이후 발표한, 반자동 소총 등 공격용 무기 거래 금지를 포함하는 총기 종합대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안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미국총기협회(NRA), 상당수 미국민이 총기 소지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스라엘 프로축구경기에 무슬림선수 출전

이스라엘 프로축구 리그 경기에 이슬람 종교를 가진 체첸 국적의 선수가 출전하면서 인종·종교 차별 논쟁이 일 전망이다. 이스라엘 프로축구 명문팀 베이타르 예루살렘에 최근 입단한 이슬람교도 가브리엘 카디에프(19)는 지난 10일 예루살렘 테디스타디움에서 열린 이스라엘계 아랍팀 브네이 사크닌과 홈 경기에 이적 후 처음 출전했다.

수비수 카디에프는 경찰관 500명 이상이 축구장 안팎에 배치된 삼엄한 경비 속에 80분간 경기장을 누볐다. 축구장에는 '폭력과 인종 차별? 우리 경기장에는 없다'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2-2 무승부로 끝난 이 경기는 베이타르 구단에서 의문의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틀 뒤 치러진 것이다. 일부 과격한 베이타르 팬들이 당시 구단 훈련장을 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단에 전시된 트로피와 기념품이 불에 타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구단이 체첸 출신 이슬람교도 선수 2명과 계약하자 이에 홈 팬들의 불만이 그대로 표출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두 명의 입단이 확정된 지난달 이후 홈구장에서는 인종 차별도 더 심해졌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전했다. 예루살렘 경찰 대변인은 축구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인종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검찰과 협력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단에 입단한 또 다른 이슬람교도 축구 선수 자우르 사다예프(23)는 부상으로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상태다.

창단 7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베이타르는 이스라엘 프로 리그에서 6차례, 컵대회에서 7차례 우승한 전력이 있는 명문팀이다. 이 팀은 이스라엘 우파 조직과 강한 연대를 보이고 있고 집권당 리쿠드당과도 연계돼 있다. 그러나 2005년 등장한 극성 팬 클럽 '라 파밀리아' 회원들의 과격한 언행으로 베이타르는 무관중 경기를 치르거나 승점이 삭감되는 일도 겪었다.

베이타르 극성 팬들은 평소 상대팀 선수를 향해 종교 차별적, 아랍계 비하 등의 구호를 외치지만 체첸 출신 선수 영입으로 구단과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국가조찬기도회서 "믿음" 강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5번째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란 말씀을 인용하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 자국 난 손에 믿음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가조찬기도회는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모든 대통령이 빠짐없이 참석해 온 행사로, 민주·공화 양당 주요 인사들이 이때만은 당파를 떠나 나라를 위해 기도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기도회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들이 이곳을 떠나자마자 잊혀질 것 같아 걱정된다"면서 "나도 백악관 집무실로 돌아가면 마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뉴스채널을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나 낙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조연설자로 나선 신경외과의 벤 카슨은 "많은 사람들이 남들한테 공격받을까봐 말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며 동성애·낙태 옹호론자들의 기세등등한 세태를 꼬집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요.

상담 환영!!!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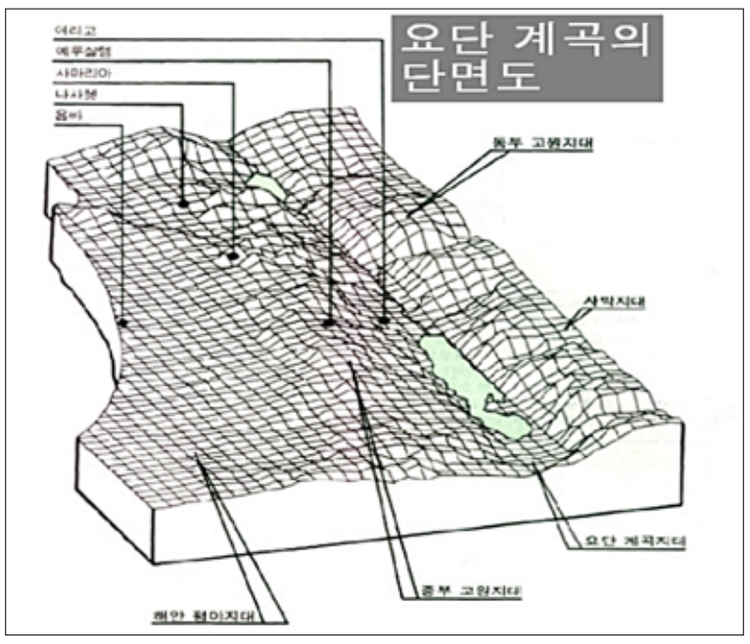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예수님의 발자취 (6)

6) 네게브

네게브는 이스라엘의 남부 브엘세바로부터 남쪽 지역으로, 동서 폭이 112Km이며 에일랏에 이르기까지 폭이 줄어드는 삼각형 모양이다.

강수량은 북쪽지역에서 300mm 정도이지만 남쪽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100mm정도에 이른다. 네게브는 비는 아주 조금 내리고 증발이 심해 메마른 땅으로 완전 사막과 같지만 일반적으로 평평하며 기후와 습도의 차이가 적어서 아브라함시대이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정착했다. 우기에는 적은 양의 비가 순식간에 한 곳으로 모여 급류가 되는 와디가 있어, 성경에는 남방의 시내로 표현된다(시126:4). 서부 네게브에 중요한 2개의 와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련된 아비멜렉의 땅 그랄 골짜기(창20:1, 26:1)와 다윗이 시글락을 습격한 아말렉을 쫓아가는 브솔 시내가 있다(삼상30:1-30).

무역로와 중요한 도로들이 네게브를 가로질러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요단 동편산지로 연결된다. 전쟁시 이스라엘을 침입할 때 이 황폐한 지역을 쉽게 건널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웃나라 사이의 완충역할을 했다. 주요 도시로는 광야시대부터 등장하는 아랏(수12:14)과 호르마(민14:45, 민21:3, 수12:14)가 있다. 남쪽으로 크고 황량한 사막이 있으며 신광야, 바란광야, 시내광야 등으로 부른다.



브엘세바는 네게브의 수도이며 고대 이스라엘 땅의 경계-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삿20:1, 대상21:2, 삼상3:20)-중에서 가장 남쪽 도시이며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은 증거로 판 우물 이름이며, 이는 히브리어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다(창21:30-31). 아브라함은 거기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창21:33, 22:19). 또한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삼상8:1-2).

이곳은 고대로부터 근동과 애굽의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요충지였으며 이스라엘의 최남단 곧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로부터 약 80km나 떨어진 곳이다.

"거룩하다"는 뜻을 가진 가데스의 위치는 시내산 북쪽 바네아에 있는 성읍으로 시내 반도 신광야 즉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다(민20:1). 가데스 바네아(kadesh barnea)라고도 하며 원래 명칭을 앤미스밧이다. 광야를 유랑한 이스라엘 사람의 숙영지인데 가데스란 명칭은 고대 성읍들 중 성전이 있던 지역에 흔히 붙여진 대명사이다.

또한 이곳은 시내산에 다음가는 중요한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을 출발 11일후에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해 진영했다(신1:19.20). 이곳에서 가나안 정탐꾼이 파견됐는데, 그들의 그릇된 보고는 백성들을 불신으로 이끌어 그들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생활을 하다가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게 된다. 이곳에서 레위지파인 고라의 반역이 있었으며(민16장), 미리암이 죽어 장사됐다(민20:1).

4. 대협곡/지구대
(Rift valley/ Syria-Africa Rift)

땅이 갈라져 생긴 중앙대협곡은 지구상에서 가장 길고 깊고 넓은 단층 지구대인 시리아-아프리카 지구대의 일부분에 해당된다. 그 길이는 무려 6500Km나 되며 지구 전체 둘레 길이의 1/6에 해당되는 거리이다. 중앙대협곡의 바닥은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역에 따라 호수, 늪지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지형, 기후, 거주조건들이 다르다.

이스라엘 땅은 중앙대협곡(요단계곡지대)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진다. 중앙대협곡의 북쪽에는 갈릴리호수, 남쪽에는 사해가 있고 사해 밑으로는 홍해에까지 이른다. 이스라엘에서 중앙대협곡은 해수면 아래에 놓이며 염해는 -400m, 갈릴리 호수는 -200m에 위치한다. 중앙대협곡 양편으로는 높은 산지가 있어 고도 차이는 더 극명하게 느껴진다. 중앙대협곡은 지진과 화산 활동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사해 주변에는 많은 광천수 온천들이 있다.

중앙대협곡은 북쪽부터 상부 요르단(훌레 계곡), 갈릴리 호수, 하부 요르단(요단강 계곡), 사해, 아라바 지역으로 나뉜다.

1) 훌레 계곡(상부 요르단)

훌레 계곡은 주변 산과 언덕으로 인해 사면이 둘러싸인 좁은 계곡이다. 서쪽에 위치한 상부 갈릴리 산지는 훌레 계곡의 바닥에서 약 800m 높이로 솟아있으며, 동쪽에는 1000m 이상의 높이를 이루고 있는 상부 골란고원이 위치하고 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해발 2814m의 헬몬산이 500m 높이의 메툴라 산지와 연결돼 있다. 남쪽에는 100-200m 높이의 로쉬피나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이 로쉬피나 지역으로 인해 훌레 계곡은 남쪽으로 계속되는 중앙계곡과 일시적으로 단절된 형태가 되기도 한다.

훌레 계곡의 크기는 남북의 길이가 25km이고, 동서의 폭은 6-8km가 되며, 계곡 전체의 넓이는 177km가 된다. 훌레 계곡의 지면 높이는 해발 70m 정도인데, 산지에 가까운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의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훌레 계곡의 중심부에는 작은 담수호인 '훌레 호수'가 위치하고 있었다. 지질학적으로 훌레 호수의 형성은 훌레 계곡에서 갈릴리바다로 연결되는 좁은 협곡과 관련이 있다. 즉 원래의 훌레 계곡은 남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중앙계곡과 로쉬피나 지역으로 인해 단절돼 있었던 지역이다. 그러므로 초기의 훌레 계곡은 산지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들이 모여 거대한 늪지대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훌레 계곡의 넘쳐흐르는 물들이 낮은 지역인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언덕을 이루고 있는 현무암층을 점차적으로 깎아내려 비교적 넓고 깊은 협곡을 형성하게 됐다. 그에 따라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 훌레 호수 수면은 상당히 낮아지게 됐고, 갈대, 파피루스, 수선화 등과 같은 경제성이 별로 없는 늪지대 식물들만이 자라는 2m 정도 깊이의 호수가 됐다.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 이후 쓸모없는 늪지대의 훌레 호수를 배수와 간척공사를 통해 비옥한 농경지로 바꿨다. 오늘날 이 지역에는 많은 이스라엘의 집단농장들이 자리하고 있다.

훌레 호수 주변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우량이 많은 산지로 둘러싸여있다. 서쪽의 상부 갈릴리산지는 연간 강우량이 900mm 정도이며, 동쪽의 골란고원은 연간 1000mm, 그리고 헬몬 산의 경우는 연간 1500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다.

훌레 호수의 넘쳐흐르는 물들로 형성된 남쪽의 좁은 협곡은 지형적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훌레 호수의 남단에서 갈릴리바다까지 거리는 14km에 불과하지만, 높이의 차이는 무려 270m나 된다. 이 지역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 비교적 강한 현무암층임에도 불구하고 깊고 좁은 협곡이 형성된 것은 이런 격차가 심한 지형 때문이었다.

훌레 계곡을 지나는 중심도로는 갈릴리바다의 서쪽 해안에서 시작돼 상부 갈릴리산지 기슭을 따라 북상하는 형태로 형성됐다. 이 중심도로는 하솔에서 북쪽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와 동쪽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로 나눠진다. 북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뵈니게 지방과 레바논으로 연결되고, 동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훌레 호수의 남단에서 요단강과 골란고원을 거쳐 다메섹으로 연결되는 '해안 길'의 마지막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칼럼 음악목회 (3)

예배와 음악목회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그런데 예배 가운데 예배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악입니다. 실로 음악은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제물 중의 하나입니다. 찬양의 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그 음악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것은,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역대하 5장 12절-14절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일백 이십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시편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찬송은 사단을 물리칩니다. 시8편 1,2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쟁을 이겨 놓은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 21,22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적과 전쟁할 때도 무기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먼저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아갈 때, 이미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 놓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대를 육성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서 사탄을 물리치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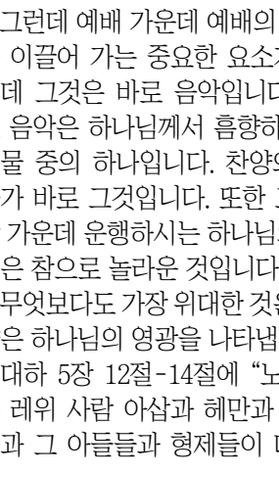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비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느냐 아니면 아니 받으시느냐는 것입니다.

시편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기 원하시며 진정한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시편100편 4절을 근거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찌어다". 죄인인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찬양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며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를 이루어 가는데 음악목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락처: (714)699-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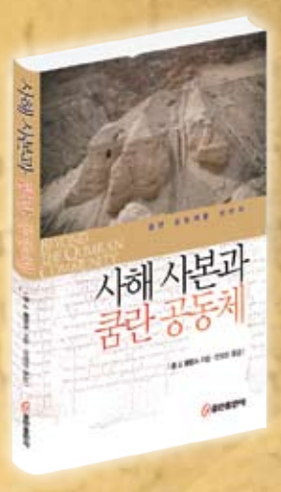
2013 희망찬 새해 추천도서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혁자들의 개혁의 불꽃이 희미해질 무렵, 혜성같이 나타나 삶의 전 영역을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케 한 인물이다. 그의 삶은 목회로 시작하여 자유대학을 세우고 기독신문을 창간하는 등 점점 넓어지다가 궁극적으로는 정계에서까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며 그가 들었던 개혁의 깃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발걸음들을 살펴보다보면 어느새 카이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윌리엄 B. 에드먼스 지음, **한국기독교정치연구소** 옮김 | 424면 | 13,000원



사해 사본과 쿰란 공동체

본서는 사해 사본과 쿰란 공동체, 즉 유대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공동체 생활을 했던 분파와 그들의 거주지, 사해 사본의 관계를 고고학, 헬라 문헌, 그리고 사해 사본의 연구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구약성경, 특히 중간기 문헌의 대가인 존 콜린스 교수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사해 사본과 쿰란에 존재했던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논쟁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간다.
본서는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들과 쿰란에 거주했던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는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과 그 문제점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존 J. 콜린스 지음 | 안창선 옮김 | 376면 | 13,000원

성경을 증거하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유물 이·야·기

본 저서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유물 이야기들을 통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를 훑어내려간다. 스핑크스의 비밀같이 작은 궁금증부터, 에덴동산의 위치와 모습을 추적하는 등의 여러가지 의문들을 역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 속에 속속들이 숨겨진 성경의 역사적 진실과 증거들을 내보이며 성경이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

김남철 지음 | 376면 | 20,000원

· 한글인터넷주소 쿰란, 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주소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쿰란출판사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25. 인종의 기원

인류는 피부색 언어 상관없이 한 종...격리과정 설명 필요
바벨탑 사건만이 인종 기원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집만 나서면 우리와 다른 말을 하고 모습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만나면서 살고 있다. 피부가 더 하얀 사람도 있고 더 까만 사람도 있다. 피부색뿐 아니라 눈 모양도 코 모양도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세상법에서는 외모를 기준으로 서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상 과학자나 역사가들은 서로 다르게 보이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누구이며 어떻게 그런 피부색을 갖게 되었는지 왜 차별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일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1. 생물학적으로 '인종들'이란 것이 있을까?

지식이 많다는 학자들까지도 3가지 혹은 4가지의 인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된 적이 있다(American Anthropologist Vol. 97, no. 2, 231-242, 1995). 이 보고서는 과학과 거리가 있는 문화인류학자 절반 이상이 생물학적인 인종이 있다고 믿는다는 설문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생물학자들 중에도 16%정도는 인종이 있다고 말한다. 학자들이 이 정도이니 일반인들이 생물학적인 인종이 있다고 믿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종(species)이라는 용어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자연교배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 안에 다른 종(species)이 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틀린 말이다. 또, 유전정보 측면에서 보아도 사람들은 피부색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한 종(species)임이 Human Genome Project 결과로 확인이 되었다(2003년). 불과 5000년의 짧은 족보(Nature. 2004;431(7008):562-6)를 가졌다거나 미토콘드리아DNA를 토대로 계산해보니 인류역사가 6000년 밖에 안 되었다(Science. 1998; 279(5347):28-29)는 보고들도 사람은 한 종(species)뿐임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2. 한 조상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성경 역사만 인종의 기원을 설명한다!
한 혈통인 인류가 다른 피부색을 갖게 된 경위를 설명하려면 바벨탑 사건만이 유일한 설명이다.

우선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자. 우리의 DNA에는 약 25,000개의 유전자들이 쌍으로 들어있다. 한 벌은 아버지로부터 다른 한 벌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각 쌍의 유전자들은 서로 100% 일치하지 않은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약 6.7%정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 피부색을 만드는 멜라닌 유전자 쌍을 예로 들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한 벌의 멜라닌 유전자는 멜라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적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다른 한 벌의 멜라닌 유전자는 반대로 아주 많은 양의 멜라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중간 정도의 피부색이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피부색은 아주 검은 유전자 조합부터 아주 밝은 유전자 조합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25,000가지의 유전자들을 재조합하게 되면 1에 0이 504개 붙은 수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총합계가 1에 0이 80개 붙은 수이므로 사람의 다양성이 얼마나 클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 중에 피부색, 눈, 코, 키, 체형 등에 차이가 있는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 자신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다. 사람들 간의 차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A라는 유전자가 없는 그런 차이가 아니다. 정상적인 경우 모두 A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비록 약간의 돌연변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유전정보를 재조합한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한 혈통 아담의 자손들이다.

3. 언제 그리고 어떻게 피부색이 바뀌게 되었을까?

현재 그리고 인구이동이 활발하기 전인 1940년대 이전에는 세계 각 지역 혹은 나라마다 피부색이 확연하게 달랐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서로 섞이게 되므로 지역적인 차이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피부색이 확립이 된 것이 그리 오래 전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생물학적으로 인류는 한 종(species)뿐이고, 그 기원이 그리 오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들은 이미 소개하였다.

사람들이 무척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지만 한 가족에서 시작된 사람들이 왜 서로 흩어져 다른 피부색을 갖게 된 것일까? 과학자들이 알아낸 바로는 한 집단에서 특이한 생물집단이 생겨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격리다. 검은 털과 노란 털을 동시에 가진 개 집단에서 검은 개 순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검은 개들만을 골라내고 그 안에서만 교배하는 과정을 몇 세대만 반복하게 되면 노란 털 만드는 유전정보는 없어지고 검은 털 유전자만 가진 개 집단이 된다. 그러므로 인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언어와 한 혈통인 사람들이 서로 격리되는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역사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세속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은 바벨탑사건으로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하던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언어가 혼잡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도 수만 년이나 수십만 년 전이 아니라 BC2200년경으로 추정되는 그리 오래 되지 않은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들과 현재 6900개의 언어 90여 어족으로 이루어진 인류가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졌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유전정보(human genome project)를 가지고 있고 짧은 인류역사(가계연구와 미토콘드리아 DNA연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벨탑사건이 기록된 성경의 역사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바벨탑사건과 성경 그리고 진화론

바벨탑사건은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언어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며 인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실제로 정보의 홍수시대인 지금도 구글에서 '인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라! 성경적인 설명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는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라는 동물'이라고 규정지었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답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나 답을 빼고 답을 찾으려는 세상학자들은 영원히 그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면서 헤매게 될 것이다.

완전한 창조에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바벨에서의 반역사건을 끝으로 뿔뿔이 흩어져 각 민족으로 분리되었지만 한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창세기 1-11장까지의 인류의 공통역사를 잊어버리고 방황하며 살게 되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어느 민족도 사실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진화론은 유일하게 성경에만 남아있는 실제 역사기록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결국 진화론이 심어지는 곳에는 성경이 우습게 여겨져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은 진화론시대다.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교회의 리더라면 이 시대를 바로 알고 합당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니"(대상12:32).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하나님을 바라보면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진로가 정해집니다. 돈을 열심히 바라보면 돈 돈 돈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살인까지도 불사합니다. 권력을 바라보면 힘가는 자리만을 눈에 불을 키고 잡으려합니다. 여자(남자)를 바라보면 그 여자(그 남자)의 마음을 얻고 제 마음대로 하고픈 것에 삶이 집중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면 그 문제에 삼켜집니다. 문제를 잊고자 사람들은 손쉬운 방법을 찾아 술을 마시거나 쾌락에 빠지거나 회피하기도 합니다. 각종 우상들에 눈을 주면 저가 바라보는 우상의 모습대로 비인격화가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가에 따라 그 인격이 배어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야베스가 처한 환경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못했습니다(역상4:9-10). 어떠한 고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수고롭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컷던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고통). 야베스는 자라며 '애 고통아!'라고 이리저리 치이며 미운오리새끼로 자랐습니다. 구박받으며 사는 것이 결코 살맛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야베스는 그야말로 자신의 더러운 처지가 진저리나게 싫었습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좁디좁은 우물 안에 갇힌 것같이 답답하고 숨통이 막혔습니다. 조여오는 고통 속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저를 도와줄 어느 사람의 손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 절망의 바닥을 쳤습니다. 그 무엇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고통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숨막히는 상황만을 응시하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오직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절대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머리 어느 구석에있던 믿음의 작은 한 자락이 떠올랐습니다. 조상들을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던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같이 조상을 지켜주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시야를 바꾸며, 지경을 넓혀주시길 구했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확실히 바꾸었습니다. 그 분을 바라보면서 소원하였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주시라고 입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를 시인하고 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꼭잡고 일으켜 주시리라는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벌떼같이 달려들어 마구 심정을 뒤흔드는 모든 번민의 소리들을 거절했습니다. 오직 주만 똑바로 쳐다보며 폭풍우 환난 속을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품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님 손잡아 주세요. 손을 꼭 잡아 도와주세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목말라 찾고 의지하는 양을 책임져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생애는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귀히 여겨주시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나에게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산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언제나 임시변통일 뿐입니다. 야베스와 같이 바라보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꾼다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눅11:10).말씀의 약속대로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선택대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Seeking EM Pastor

Southern Korean Presbyterian Church located in Charlotte, North Carolina is seeking a full-time English Ministry Pas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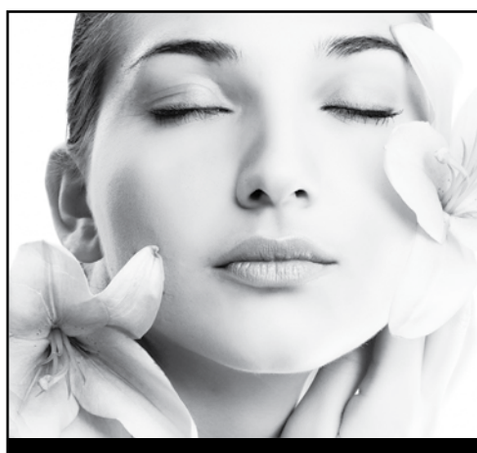
1. Qualifications
- Is a member of KAPC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es) or can become a member
- Graduated from both an accredited evangelical seminary and a 4 year college in the US
- Resides in the US legally

2. Requirements
- Resume including a photo and introduction of family
- Ministry vision statement
- Sermon on CD or MP3 format

Apply by: March 31, 2013

Mail application to:
EM Pastor Search Committee
3619 McKee Road, Charlotte, NC 28270
Or email to: sungsong1960@gmail.com
Church Website: www.thekoreanchurch.org

Southern Korean Presbyterian Church



모나리자 스킨 케어

년말연시 새해를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품권 $30, $50, $70, $100등으로 준비했습니다.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샤워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리프팅/화이트닝케어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여드름 케어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팔슬림 케어(스페샬 기계도입)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등 경락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배 경락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전신 경락	1회	~~$200~~	$150	10회 ~~$1500~~	$1250	1회 FREE
Aqua Therapy	1회	~~$250~~	$200	10회 ~~$2000~~	$1800	1회 FREE

*1회 케어도 환영합니다.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에 복음을 싣고 나갑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LA목성연 말씀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설교할 땐 본문말씀에 충실하라"

LA목성연 말씀세미나, 강사 박승호 목사

미주목회자성경연구원이 주최한 LA 목성연 말씀세미나가 11일과 12일 양일간 나성언약교회(담임 안정남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 목회자성경연구원 원장인 박승호 목사(생명샘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했다.

박승호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들이 본문말씀과 상관없는 설교를 하는 것이다. 본문과 상관없는 말들은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남는 것이 없다. 설교시간에 예수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야기는 결국 영적인 성장에 큰 장애로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오늘날 교회가 안티들의 세력을 공격을 받는 이유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고 혜택 받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만난 뒤 무엇을 내려놓아야 했으며 무엇을 손해 보게 됐는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교회사에 나타난 세 이단은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갈라디아인주의였다. 율법주의는 의식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써 구원 받을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에 대항해 나온 책이 로마서이다. 둘째 반율법주의는 우리가 은혜로써 구원을 받았기에 어떻게 살고 행동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이것에 대항해 나온 책이 야고보서이다. 세 번째 갈라디아인주의는 구원은 은혜로 얻었지만 그다음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보존되며 우리의 궁극적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개념이다. 이에 대항하여 나온 책이 갈라디아서이다"라고 설명했다.

목회자성경연구원은 1990년 1월 박승호 목사가 광주 무등산 헐몬 수양관에서 20여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게 된 것이 발단이 돼 시작하게 된 초교파 성경연구단체이다. 북미주 목성연 조직은 달라스, LA,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밴쿠버, 토론토, 오렌지, 시애틀 등에 있다.

LA지역은 4개 지부로 돼있으며 LA(지부장 이충애 목사), 다우니(지부장 정중한 목사), 다운타운(지부장 김병진 목사), 세리토스(지부장 우상림 목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목성연은 목회자들이 모여 성경공부와 함께 말씀을 어떻게 목회에 적용하고 교인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있다.

〈박준호 기자〉

목회서신

실직이 가져다 준 축복

김재열 목사
(뉴욕중부교회)

미국의 실업지수 통계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삶의 현장에서 실직을 당한 이 사람들의 심정을 누가 알랴? 특히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 실직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준다. 맨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은 패배의식이다. 철저한 소외감이다. 얼마나 못났으면...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게 된다. 동시에 자신감을 상실한다. 여기서 아차하면 대인 기피증의 포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스스로의 감옥에 갇힌다. 집에 와서는 더욱 난감하다. 우선 아내에게 면목이 서지 않는다. 자녀들에게는 무능한 아빠로 비쳐지는 것이 죽어도 싫어진다. 그래서 공연히 허세를 부리거나 아니면 그늘진 자리로 숨어들게 된다. 바로 이때가 진정한 한 가족임을 증명할 기회이다. 이때를 바로 사용하느냐? 아니냐가 가정 공동체 앞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실의에 빠진 남편에게 아빠에게 절대적인 격려가 필요하다. '여보! 그동안 열심히 뛴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아빠! 이제 잠시 쉬세요. 우리들이 있잖아요...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고래도 춤추게 하고 매출 신장과 직결된다고 한다. 세계 정복보다 더 기분 좋은 것은 아내의 칭찬이라고 했다.

이제 실직자는 맨 먼저 생각의 안경을 바꿔 써야 한다. 인생은 어차피 경기의 연속이다. 이번 게임에서 패한 것이지 전체를 패한 것이 아니다. 게임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어떻게 늘 이기기만 하겠는가? 이번 게임에서만 진 것이다. 멀리 봐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자아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잘나갈 때에 볼 수 없던 자신의 행동양식이나 가치관을 점검해야 한다. 가정부활의 기회로 선용해야 한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스피드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실직의 기회에 자신의 재능을 재확인해보라. 현실에 급급하여 비전공을 전공으로 알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이제 과거에 하고 싶었던 것을 개발하라. 어떤 이들은 통신으로 야간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 전공을 준비하기도 한다. 문제는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다. 오히려 벌목공의 톱날을 세우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 홈런 신기록 보유자도 홈런보다 삼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만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패배에서 나온 것이다. 해는 내일에도 또다시 뜬다. 지나온 시간은 도저히 돌릴 수 없다. 남은 시간만이 내 시간이다. 세찬 시간의 바람에 이상의 연을 더 높이 띄우는 여유를 가지라.

거친 바람은 철새들을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동해주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한다. 강풍을 타는 기술을 연마하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라. 그리고 서서히 그러나 강력하게 행동하라. 여기에 신앙을 가지라! 그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한다. 용수철은 강력한 억압에서 더욱 강한 폭발을 한다. 모든 현악기는 잔인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색을 빚는다. 실업을 실업가로 만들라.

욥이라는 시련의 챔피언은 이렇게 코치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23:10).

'2013 사랑의교실 운영지침서' 주제

2013 밀알 자원봉사자 세미나 성황

남가주밀알선교단에서 주최한 2013 밀알 자원봉사자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2013 밀알 자원봉사자 세미나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남가주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13 사랑의교실 운영지침서'라는 주제로 열린 전체강의에서 주강사로 참여한 김효선 박사(칼스테이트유니버스티LA 특수교육학교수)는 "장애인들을 대할 때 그들의 장애가 아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을 봐야 한다"고 말하고, "밀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할 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인만큼 학교생활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랑의교실 자원봉사의 목적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토요일 하루 장애아동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친구가 되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에게 맡겨진 장애아동들의 생일날 카드를 보내거나 이메일로 축하메시지를 하는 것, 주중에 전화와 문자 등으로 교재를 나누길 바란다. 장애아동들은 친구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자"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효선 박사와 김경숙 선생(밀알사랑의교실)이 주제별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김효선 박사가 'Serving & Educating Individuals with DD', 'Taking a Closer Look at the Administration Manual'을, 김경숙 선생이 'Sexual Maturity'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전에 열린 예배에서 크리스천예배문화선교팀 PPOG가 찬양인도를 했으며 이종희 목사가 기도를, 손병렬 목사가 설교와 축도를 담당했다.

〈박준호 기자〉

대화로 이어가는 '아날로그 리더십' 필요!

리더십저널, "디지털시대 이면엔 외톨이 인간 존재" 보도

하루의 뉴스를 살피다보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관한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스마트폰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이런 새로운 풍속도의 어두운 이면을 소개하는 기사도 종종 보게 된다. 이런 어두운 면을 소개하는 기사는 디지털화된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명실상부한 스마트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런 어두운 이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듯하다. 분명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통해 물리적 간격과 거리를 좁히고 더욱 자주 손쉽게 오랜 친구들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통(connect)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토록 혁신적인 스마트폰 기술이 물리적 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 사이에도 디지털 도구를 꼭 사용해야만 통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것 같다.

이러한 사회적 양면성을 리더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급속히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적응하는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들의 핵심 메시지는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각자의 리더십 백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리더십의 영향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분명 최고의 디지털은 아날로그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리더십의 아날로그적 요소를 한 번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앨런 버슨과 리처드 스타이글리츠는 그들이 공저한 "리더십 대화(Leadership Conversation)"에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잘 파악한다. 그들은 업무와 사업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술이 그야말로 매일같이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이 시대에 위대한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오히려 아날로그적 대화의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대화의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네 가지의 전략적 대화에 관해서 말해준다:

△관계 계발을 위한 대화-감성지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팔로워들의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아 조직의 목표를 이루는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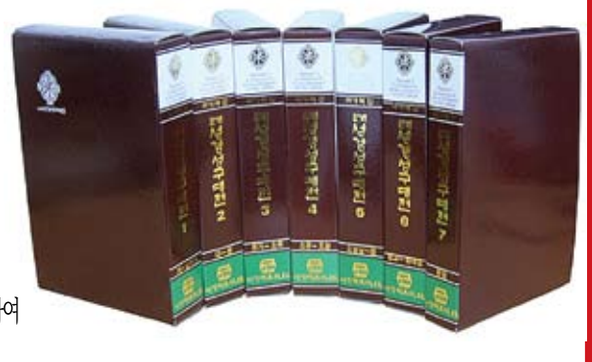
△타인을 성장시키는 대화-팔로워들의 성장을 통해 조직의 미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화

△결정이 내려지는 대화-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또 선택권을 팔로워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행동실천을 위한 대화-비전 수립부터 자원 배치, 성과 측정 등을 통하여 성공과 실패를 떠나 꾸준한 배움을 지향하는 대화

버슨과 스타이글리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한 걸음 가까이 설 수 있는 대화이다. 그리고 이 대화를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리더십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들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JoyLA.com
sale
주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이기폐 완벽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1권 : 가 ~ 닙하스
2권 : 다 ~ 못
3권 : 못가 ~ 소위
4권 : 소유 ~ 오늘
5권 : 오늘날 ~ 종
6권 : 종교 ~ 힛데겔
7권 : 편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를 이에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있도록 제작

2013 미주용 다이어리 신청하세요
다이어리 커버에 교회이름 인쇄, 수첩 안에는 필요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첩커버에 100부이상은 무료로 인쇄해 드립니다(단 10월 31일까지 주문에 한함).
50부 이상 100부 미만은 인쇄비 권당 50센트씩 추가됩니다.

미주판 2013 Immanuel
다양하고 실용성 있는 내용과 세련된 디자인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큐티를 겸함 임마누엘 미주판 2013다이어리!
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

2013 Agape
Partner Diary 미주판
고급스런 표지와 세련된 디자인,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된 미주전용 Contents! 교사용, 구역장용, 성가대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필수 Gift 아이템입니다.
1-50권은 $650
51-99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

2013 하이옴 다이어리
30년 동안 목회자, 구역장, 교사들의 친구한 사역 도우미! 미주생활 안내가 기재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1-5-권은 $6.25
51-99 권은 $5.75
100권 이상은 $5.25

미주판 2013 Qurmnan
Christian Diary(Medium Size)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분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
1-50 권은 $5.50
51-99 권은 $5.00
100권 이상은 $4.50

미주판 2013 Qumran
Christian Diary(Large Size)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분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
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2013
2013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이어리 Experiencing GOD diary! 목회자, 제직, 교사, 성가대, 구역장의 사역필수품!
1-50 권은 $6.95
51-99 권은 $6.55
100권 이상은 $6.00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조이기독백화점 |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동부교계 게시판

east

퀸즈장로교회 설립 39주년기념 음악회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가 설립 39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를 갖는다. 일시는 24일(주) 오후 4시이며 본지가 주최하는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 세미나를 후원하는 음악회를 겸한다.

▲문의: (718)886-4040

뉴욕새생명장로교회 제 11회 40일 특별새벽기도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준 목사)가 18일(월)부터 3월 31일(주)까지 제 11회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찌어다"(시46:5,8),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대하16:9)를 주제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시작한다.

▲문의: (718)637-1470

"주의 일꾼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자"

KAPC 동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 주강사 장영춘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 동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가 뉴욕노회(노회장 조문선 목사) 주관으로 지난 11일부터 3일간 필라델피아 포코노 지역 헐리데이인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주제로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 원로, 본지 발행인)를 주강사로 열렸다. 또한 이영섭 목사(볼티모어교회 담임)가 강사로 섰으며, 장미은 사모(퀸즈장로교회)가 사모세미나를 인도했다.

첫날 저녁 열린 개회예배는 호스트 노회인 뉴욕노회 노회장 조문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건강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총회장 김남수 목사대신 장영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장 목사는 에베소서 1장 3-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허상회 목사와 이원호 목사의 인도로 뜨거운 기도가 진행됐다.

둘째 날 오전 장영춘 목사는 두 차례에 걸쳐 "데오빌로여, 오순절을 통과하라"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교회개척과 부흥에 대해 간증하며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강조하고 개척초기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자"라는 표어와 함께 말씀충만, 기도충만, 성령충만, 사랑충만, 감사충만 등 5가지 충만으로 사도행전 목회를 해왔다고 고백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열린문교회 청소년 앙상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다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 캠페인" 행사

워싱턴DC 열린문장로교회, APPA 노숙자 초청

워싱턴DC 열린문장로교회(담임 김용훈 목사)는 지난 2일 워싱턴DC 평화나눔공동체(APPA, 대표 최상진 목사) 소속 노숙자들을 초청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40여 명의 노숙자들과 평화나눔공동체 스탭들이 초대된 이번 섬김과 나눔 행사에는 열린문장로교회 지역사회봉사팀(팀장 배석헌 집사)과 오이코스 소속 70여 자원봉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1부 예배애서 설교한 브라이언 멘도자 전도사(열린문장로교회 EM)는 "예수님도 가난한 이웃을 섬기시기 위해 노숙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며,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삶 그자체이며 그의 중요한 가르치심"이라고 강조했다.

2부에는 노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간증과 찬양을 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평화나눔공동체 소속 에스더조 선교사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참여방법, 평화나눔공동체 동영상 감상, 열린문교회 소속 청소년 앙상블 오케스트라 특별연주 시간이 있었다.

참여 및 후원문의는 (571)259-4937(최상진 목사)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평화나눔공동체〉

교회일보 창간4주년기념

제3회 무료 '사랑의 쌀' 나누기

교회일보가 창간 4주년 기념으로 제3회 무료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9일 오전 10시, 퀸즈중앙감리교회(담임 이종범 목사)에서 열었다.

교회일보 대표 우병만 목사는 "거동이 불편한 한인 노인들과 생활고로 어려운 이웃에게 우선을 두었고 그 외 암환자 지원 단체, 한인 노숙자 지원 단체, 탈북자 지원 단체, 장애우 지원 단체, 유학생들과 개척교회 등에게도 골고루 쌀을 전달한다"며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이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가득차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사랑의 쌀'은 모두 140포로 교회일보에서 100포, 뉴욕비전교회(담임 김연규 목사)에서 40포를 기증했다. 교회일보는 매년 구정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해오고 있다.

존엄사 논란 이성은 양, 하나님 품으로

14일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서 환송예배

지난해 존엄사로 뉴욕교계에 아픔을 줬던 이성은 양(사진 ·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성은 자매는 10일 저녁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으나 30여분 만에 숨을 거두었다.

아버지 이만호 목사는 성은 양의 죽음을 알리며 "천국에 갔지만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그동안 성원해 준 뉴욕교계와 언론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목사와 이진아 사모가 보내온 이메일에 의하면 성은 양은 1984년 6월 16일 딸 없는 가정에 유일한 딸로 태어나 온 가족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성경을 꼭 읽고 잠자리에 드는 등 돈독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온 후에도 미국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공부와 음악 등 여러 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또 대학졸업(UNC Chapel Hill University) 후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유능한 직원으로, 교회에서는 유스교사로 헌신했다.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는 선교비를 꾸준히 보냈다. 그리고 2011년 11월 6일 뉴욕마라톤대회에 참석하고자 직장과 신학교를 다니면서 16주간을 잘 먹지도 못하고 뛰다가 너무 힘에 겨워 쓰러졌다. 조사결과 뇌종양(0.7mm)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작년 7월 9일 MSKCC 병원에 기운이 없다고 조사차 들어갔다가 테모달을 5일간 먹은 다음 온몸이 마비증세를 보였으며 9월 28일 존엄사 집행승인 판결을 받았다. 부모들은 병원과 투쟁 끝에 지난해 11월 21일 집으로 퇴원한 성은양은 몸을 움직이는 등 차도를 보여왔다.

장례일정은 순복음안디옥교회에서 14일 오후 8시 환송예배와 15일 오전 10시 발인예배를 드렸다.

〈유원정 기자〉

미주성결교회 제36회 동부지방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괴롭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뉴욕목사회 임실행위, 성지순례·체육대회 등 보고

뉴욕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가 지난 7일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성지순례와 미동부목회자연합체육대회 등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임병남 목사(서기)의 사회로 기도 이재덕 목사(협동총무), 설교 최예식 목사, 광고 김기호 목사(총무), 축도 황동익 목사(부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예식 목사는 "괴로운 날에 기도하자!"(시102:2)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살다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사역자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 괴로운 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벌리지 않는 게 문제다. 모든 일은 감정적으로 처리하거나 문제를 회피하거나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면 안된다. 급할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함으로 사명의 승리자가 되자"고 말했다.

2부 회의에서 최예식 목사는 신년금식기도회가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보고하고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가는 성지순례에 대한 안내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키세나 파크에서 열리는 미동부목회자연합체육대회에 대해 보고했다.

△성지순례는 선착순 48명에게 일인당 500달러씩 지원하며 총 경비는 2400달러이다. △체육대회는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5개 지역이 참가하며 축구, 배구, 탁구, 족구, 테니스 등 5개 종목이 운영 된다.

또 목사회는 △2월 16일(토) 플러싱 구정퍼레이드에 참가한다고 밝히고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3월 10일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리는 세계선교대회(북미원주민선교) 참여도 공지했다.

〈유원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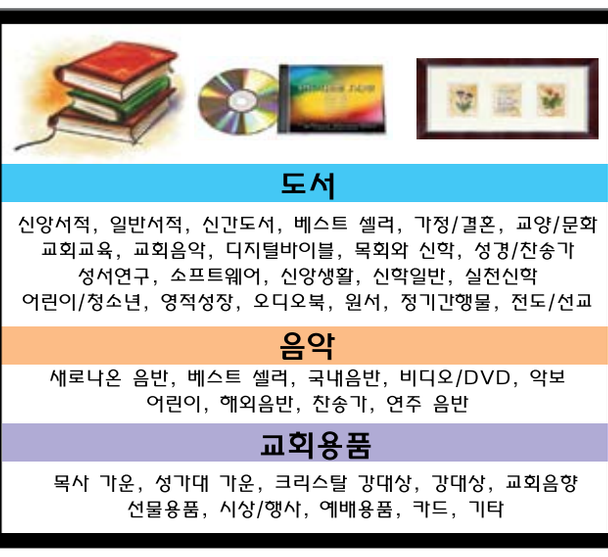
[정정] 1421호 10면 "뉴욕새생명장로교회 설립1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기사 맨 끝에 "이날 교회는 10년 근속한 허윤준 담임목사에게 근속패를 증정했다"는 "허윤준 담임목사는 10년 근속교인들에게 근속패를 증정했다"로 정정합니다. 근속자는 김소영 최우영 정민호 정혜영 정철호 정소라 정진희 윤현우 박우찬 염혜영 등 10명.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에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낱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목회와 신학, 성경/찬송가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음악
새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향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2013년 달력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이름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일반달력/기독교달력
공장도 가격세일

- 달력/수첩 주문제작 가능
- 교회 로고와 이름 인쇄 가능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다니엘 전자성경
●만나 전자성경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7 미가엘 반주기
뛰어난 휴대성! 확 바뀌고 달라진 기능!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음질 스피커
- USB 호스트 기능
- SD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 중동부 지사 확득! 특별세일!

첼라성구사
에하드수정강대상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첼라만의 독특한 디자인

미주지사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업계 최초 GD마크 획득!
한국디자인 진흥원으로 부터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정남품업체 선정
이동이 자유로운 바퀴(360도회전)
순금(1기둥당 1돈중)
상단전체 무광처리 - 설교자 시력보호

이외에도 다양한 목재성구와 크리스탈 성구가 있습니다.

주문처
성경.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샤핑몰
www.gospelmall.com

NY 40-21 159th Suite 1B Flushing NY 11358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m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621 S. Virgil Ave.
Suite 200 L. A., CA 90005
213-925-5434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까운,
달력, 다이어리

남가주목사회 '한미기독교센터' 건립 재추진

명칭변경...남가주교협, 여성목사회, 장로협 등 협력

남가주목사회의 방만한 경영과 모금관리 미숙으로 중단됐던 한미기독교센터 건립이 재추진된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운영 목사)는 5일 이운영 회장이 시무하는 한미장로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4월 8일 타운내 다호갈비에서 한미기독교센터 건립후원을 위한 일일식당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남가주목사회 이운영 회장이 한미기독교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목사회는 지난해 추진됐던 회관건립이 일일식당 및 펀드레이징 과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 모금된 금액을 초과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목사회의 위상과 신뢰가 떨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운영 회장은 "작년에 실시됐던 기독교회관건립을 위한 일일식당은 성황을 이뤘지만 일일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용된 비용이 들어온 비용보다 많았다. 또한 한국에서 회관건립을 위한 기금마련활동 과정에서도 필요이상의 비용이 지출돼 결국 회관건립자금을 모으는데 실패했다"고 밝히며 "이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오류가 일어났다. 그러나 미주한인이민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으며 이민사회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성이 있기에 회관건립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가주목사회는 2012년 목사회 주관으로 이 일을 시행했지만 2013년에는 목사회만이 아닌 남가주여성목사회와 남가주장로협의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게 되며 회관명칭도 '한미기독교센터'라고 명명했다. 앞으로 남가주교협 및 각 교단과도 협력해 센터건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운영 회장은 "모금과정에서 일어난 잘못으로 목사회의 위상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이다. 신뢰회복을 위해 한미기독교회관(Korean American Christian Center)라는 이름으로 비영리단체 등록을 했으며 IRS와 INS에 등록, 택스넘버 취득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들어온 기금은 센터기금계좌에 입금이 되며 모금된 금액은 회관건립을 시작하기 전에는 1달러도 사용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한미기독교센터는 지상3층 이상의 건물로 모든 교계 단체가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문화시설도 마련해 교계가 한미기독교센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금조성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LA성시화운동본부 홀리클럽 10주년 기념예배

LA 성시화운동본부와 홀리클럽 10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7일(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설교는 박희민 목사가 맡는다.

▲문의: (213)381-2202

뉴스피릿 무브먼트 포럼

제 3차 뉴스피릿 무브먼트 포럼(New Spirit Movement Forum 상임대표 박용덕 목사)이 21일(목) 오전10시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와 목사회(회장 신종은 목사), 미주극동방송(지사장 김준원) 후원으로 남가주빛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열린다. 회비는 없으며 점심이 제공된다.

▲문의: (714)401-9874

드림몸 찬양선교단 미주순회공연

미주에서 거리선교회 사역을 하다 3년 전 한국으로 간 박영빈 목사(서해안 식도교회 담임)가 섬 아낙으로 구성된 워십찬양단과 함께 LA를 방문, 14일(목)부터 28일(목)까지 이민교회와 긍휼사역 현장을 돌아본다. 본 선교단은 국악풍 찬양곡에 맞춰 부채춤을 곁들인 워십찬양으로 고국의 정서와 아름다움을 선사하게 되며 26일(화) LA미션센터를 견학하고 공연을 갖게 되며 17일(주) 오후 5시 성시화운동본부 10주년 기념예배에서 축하공연을 갖는다. 이외에서 롱비치, 가데나, LA 한인타운, 라스베가스 지역을 돌며 순회공연을 갖는다.

▲문의: youngbin56@naver.com

베데스다음대 그렉 메티슨 강의

베데스다대학교(총장 진유철 목사) 음악대학은 실용음악과 & 찬양사역과 그렉 메티슨 교수 강의를 25일(월)부터 시작한다. 메티슨 교수는 현재 LA 최고의 키보드 주자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즈앙상블, 어렌징, CCM 등 전반적인 찬양/실용음악 강의를 맡게 되고, 또한 매 학기마다 워크샵 및 교수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문의: (714)683-1210

APU 이원우 박사 특강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월레스 박사)신학대학교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에서는 18일(월) 오후 2부터 4시까지 이원우 박사(칼빈대학교 교수) 특강을 본교 웨스트캠퍼스 Duke Academic Complex 603호(701 E. Foothill Blvd., Azusa, CA)에서 갖는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시가서의 영성'이다.

▲문의: (818)331-5478/최장식 동문회장

LA연합교회 설립예배

LA연합교회(공동담임 정홍권 목사, 김동술 목사) 교회설립예배가 17일(주) 오후 1시30분 열린다.

▲문의: (213)905-0445/정홍권 목사, (310)661-1166/김동술 목사

나성서부교회에서 열린 한미연합찬양예배에서 APU 밸칸토 합창단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APU벨칸토합창단 나성서부교회 방문연주회

한인커뮤니티 최초...세계 순회 일환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존 월레스 박사) 음대생들로 구성된 벨칸토 합창단(지휘 데이빗 휴즈 박사)이 나성서부교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열린 한미연합찬양예배에 참석해 은혜롭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다.

10일 오전 11시 나성서부교회에서 열린 한미연합찬양예배에서 벨칸토 합창단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내리게 하소서', '시편 11편 다윗의 노래', '오 위대하고 놀라운 탄생의 신비여', 'Love Never Fails', '영광의 구원열차', 'We Choose Joy', '시편 8편' 등의 성가곡을 불러 교인들의 마음을 찬양으로 가득 채웠다.

이날 연주회는 APU 벨칸토 합창단이 전 세계 순회연주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한인교회 대상으로는 최초로 열린 연주회였다. 이번 연주회는 본 교회 이상열 장로와 뮤직디렉터이자 APU 음대 교수인 김연주 박사가 기획했다.

APU는 114년의 역사를 가진 '하나님 먼저(God First)'를 교훈으로 하는 북미주 130여개의 기독교 종합대학교들 중에서 가장 큰 학교이다. 벨칸토 합창단은 APU내 6개의 합창단 중 여성으로만 구성된 합창단이며 미국을 비롯, 전 세계를 순회하며 찬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데이빗 휴즈 박사는 "APU에서는 겸손한 믿음과 더불어 지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LA에 있는 나성서부교회에서 찬양하게 됐는데 환영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한미연합 찬양예배는 김그레이스 자매가 특송을 했으며 이정현 목사가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사61:6-11)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미국을 위한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이정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가정사역단체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주최 커플관계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자기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가정을세우는사람들' 제7회 커플관계검사 워크샵

가정사역단체 '가정을세우는사람들'(금정진/금병달 공동대표)과 탈봇의 써니송 교수가 주최한 제7회 커플관계 검사 워크샵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써니송 박사는 "커플들의 관계에서 본인이 좋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겐 좋지 않게 다가갈 수 있다. 자기정체성은 배우자에게서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하고 가정생활은 믿음의 기초에서 이끌어가야 하며 교회 안에서 멘토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병달 대표는 "한인들의 상당수가 대화의 기술과 갈등 해소의 기술이 부족하다. 대부분 회피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부적절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또한 많은 가정이 폭탄을 끌어안고 있다.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 프로그램은 상담자들과 목회자 교육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개발됐고 500만 명이 이 검사로 커플관계를 검진 받았을 정도로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검사에는 △의사소통 △갈등해결 △재정 △애정표현 △성적 기대 △신앙 △결혼기대 △관계역할 △커플과 원가정의 가족지도를 통한 친밀성과 유연성 등 10가지 영역에 대한 온라인 테스트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지침도 제공됐다.

자세한 문의는 (714)287-2458로 전화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LA '아름다운가게' 오프닝 행사

지역내 소외이웃과 공익단체 지원

LA지역의 소외이웃과 공익단체를 지원하는 '아름다운가게'(이사장 이태섭)가 7일 오프닝 행사를 열고 일을 시작했다.

'아름다운가게'는 웨스턴과 1가에 있는 한국마켓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의 '아름다운가게'(이사장 홍명희)와 동일한 운영방법으로 매장의 운영수익금은 LA지역의 소외계층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직업을 잃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계층의 생활 안정화나,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음악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내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힘쓰게 된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한인들이 무상으로 기증한 물건이며 주로 의류, 액세서리, 골프용품 등을 판매해 수익금을 창출한다. 기증자들에게는 세금감면용 증명서가 발급된다.

'아름다운가게' 성 진 디렉터는 아름다운가게 오픈에 맞춰 도네이션된 금액을 아시안발달장애서비스(ARS)와 한인가정상담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전달식은 엔젤레스드림파운데이션(대표 이사무엘 목사)과 함께 모금한 금액을 전달했으며 금액은 각각 1000달러씩이다.

이사무엘 목사는 "엔젤레스드림파운데이션에서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엔젤레스드림파운데이션이 지속적으로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아름다운가게 오픈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3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3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2013년 5월 시행될 "목사 학력 및 자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3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분으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3년 5월 17일(금) ~ 20일(월)
2) 고시 장소: The Westin Los Angeles Airport (310-216-5858)
540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 4과목)
2) 제출고시 :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아모스 9:11-15
(2) 신약 주해 – 마태복음16:13-20
(3) 논문 제목 – 줄기세포 연구 및 적용에 관하여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논하시오
(4) 설교 분문 – ① 신약 : 누가복음9:23-27
ⓐ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필기고사 당일에 본인이 선택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실기고사를 치름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 할 것.
1. Letter Size(8 ½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3.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4. 논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3년 8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3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37회 총회기간(5월 21일-23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허상회 목사에게 숙소를 예약할것 5월 17일-21까지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 허상회 목사 (Rev. Samuel Heo) / Email : sheo1004@hotmail.com
495 Morse Ave Ridgefield, NJ. 07657 / Cell : 201-981-0009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 송찬우 목사 (425)773-0504 (chansong_hase@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 허상회 목사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3) 영어권 안내 : 김지영 목사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최해근 목사 (267) 471-7777 (hankschoi@gmail.com)

총회장 : 김남수 목사 서기 : 이원호 목사 고시부 부장 : 송찬우 목사 고시부 서기 : 허상회 목사

"북 핵실험 강행 대단히 잘못된 일… 교계 대북 교류지원 활동위축 불가피"

교회연합기관, 기독 NGO 등 북한처사 강력 비판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국교회의 대북 구호 및 교류활동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교회연합기관 등 기독시민단체와 기독 NGO 등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교계의 대북 교류·지원 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다음달 중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신임 교단장들과 방북하기로 한 일정도 차질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북한 주민들과 영·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면서 관계개선을 위한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12일 "북한의 핵실험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북한이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침착한 대응과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NCCK는 논평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게 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생존을 위해 남북 당국자는 무조건 대화해야 하며 관련국들도 포괄적인 평화대안을 갖고 대범한 대북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계 지도자 및 신학자, 교수, 기독시민단체 인사 200여명이 동참하고 있는 평화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평통기연·상임공동대표 홍정길 목사 외 5명)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평통기연 최은상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모두가 반대해 온 3차 북핵 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안녕과 공동번영을 한꺼번에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처사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독NGO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정정섭 기아대책 회장은 "당분간 대북지원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기아대책은 이미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대북지원의 공식 창구가 막히는 바람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함경북도 일부 지역의 탁아소 지원 정도로 축소된 상태다.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교계의 공식적인 대북관련 활동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교계 북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마저도 북한의 향후 행보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 차기 정부의 대북 관계 설정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김병로 교수는 "향후 한국과 미국, 일본 쪽에서 군사적 제재까지 포함한 추가 대북제재 논의가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대화나 협상은 어려워졌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다음 정권에서 풀리기를 기대했던 교계 단체들로서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사랑의교회 북한선교부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은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주민의 경제적 궁핍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 말해 인도적 지원, 특히 평양지역을 제외한 외곽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해외 한인교회 및 지원 단체들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래목회포럼 대표인 오정호 목사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남북의 종교간 대화 채널을 가동해 교계가 화해무드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정준모 예장합동 총회장 관련 의혹 제기 당사자들 사과문 전달… "모두 사실 아니었다"

예장합동 정준모 총회장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제기했던 인사들이 정 총회장의 시무 교회를 방문, 사과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제기한 핵심인사인 윤남철, 허재근 목사는 7일 대구 성명교회를 방문, 당회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기독교계 신문이 보도했다.

이들은 사과문에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노래주점'은 유흥을 즐기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출입할 수 있는 '노래 연습장'이었다"며 "또한 도우미와 통화내역, 강남소재 룸싸롱 유흥, 음주가무, 성매매 제의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도에 넘친 표현과 미확인된 내용을 언급함으로 인해 전국교회와 우리 총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과 많은 고초를 겪으신 정준모 총회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2012년 9월12일 서울 연지동 연동교회 지하 다사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총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 제97회 정기총회에서 황규철 총무가 질서유지와 신변안전을 이유로 용역을 동원하고 가스총을 소지한 데다 정 총회장의 정기총회 파회 선언으로 예장합동 총회는 지금까지 혼란에 빠져있다.

"프레임 정해놓고 짜맞추기 의구심"

사랑의교회 사태 관련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11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박사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사랑의교회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로 본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교회언론회는 "이 사건은 시작부터 미리 '프레임'을 정하고 그 속에 비슷하게 사실인 듯 보이는 내용들로 짜맞추기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처음부터 담임목사 몰아내기가 목적이 아니었는가?'라는 강한 의혹을 살 수 있다"고 평했다. 또 "당초 이 교회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은 논문 '대필' 문제였다"며 "그래서 지난해 6월 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한 달 뒤 '대필'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그렇다면 그 활동이 만료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면 담임목사에게 사과하고 조사위원회의 역할을 종결지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교계는 사랑의교회 문제가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과도한 개입에 의한 '한국교회 죽이기'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성총회 총무해임 관련 내분 여전

총회장 탄핵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박현모 목사)의 내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단 총무 해임사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최근 총무 해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로 수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였으나 총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모 총회장은 최근 성명에서 "교단법과 교회 권위 수호차원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기로 했다"며, "총무 문제 역시 오는 5월 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총회장의 입장에 대해 임원회 내에서조차 결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총무 해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일각에서는 "교단 역사상 초유의 총회장 불신임 사태와 총무 해임은 막아야한다"며, 양보와 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회 사순절 주요 행사 풍성

묵상집 발간, 헌혈·장기기증 등 이웃사랑행사 등

많은 크리스천들은 묵상과 함께 사순절을 보낸다. 올해에도 회개와 금식, 기도와 더불어 신앙적 성찰을 돕는 다양한 사순절 묵상집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교단과 교회, 기독교 평화운동 단체는 이 기간 이웃사랑 실천에 팔을 걷었다.

예장통합총회 교육자원부는 '십자가는 희망입니다'(왼쪽 사진·한국장로교출판사)를 주제로 한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2월 13일)'부터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성경 구절과 찬송, 예화와 기도문, 삶의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도 사순절 묵상집을 내놨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성경 말씀과 찬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역시 매년 '말씀과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 성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기독교평화운동 단체인 '참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참평사·이사장 이은태 목사)도 지난해에 이어 사순절 묵상집 '예수님을 닮자'를 펴냈다. '예수닮기'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닮음)에 한걸음 더 나아가 실천을 통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담아내자는 뜻을 지니고 있다. 홍상태 참평사 연구실장은 "묵상집의 내용은 성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나 자신과 가정, 이웃, 교회, 일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참평사는 묵상집 판매금 전액을 중국 옌볜 조선족자치주에 있는 고아 및 한부모 청소년 보호시설(찐구어 어린이집)에 전달한다. 참평사는 지난해 말 한국교회희망봉사단과 함께 이 어린이집을 설립해 지원해오고 있다.

이밖에 대한성공회는 사순절 기간 북한 어린이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사순절 사랑나눔헌금' 모금에 나선다. 헌혈과 장기기증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눈에 띈다. 매년 사순절 기간 헌혈행사를 펼치고 있는 제주성안교회의 경우 김영송(53) 장로는 올해 결혼 20주년을 맞아 7년째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해 특별한 사랑을 전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김지철 목사)는 교회에서 활용 가능한 사순절 영상 2편을 제작해 배포 중이다. 사순절의 의미 등을 설명하는 '사순절의 시작'을 비롯해 사순절의 중요 덕목인 '절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다. 소망교회 홈페이지(somang.net)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기쁨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전희수
교육목사: 케더린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9:00
금요철야: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Tel.(718)359-7883, 직통.(646)270-9771
41-44 149th Place, Flushing NY 11355
E-mail: joynglorych@yahoo.com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718)482-7788, Cell.(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464-2295, (718)358-6225, Fax.(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철야: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금요예배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2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Website: nyjoongboo.org
Tel.(718)279-2757, 2758, Fax.(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18)639-3021, Fax.(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이른예배: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정오 12:00
5부열린예배: 오후 1:30
6부 BM&EM: 오후 3:00
7부늦은예배: 저녁 7: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Tel.(718)762-5756, 2525, Fax.(718)961-3111
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주1주,3주)
Tel.(718)361-9199, Fax.(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516)333-1757, 목사관.(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Tel.(732)310-0022(교회), Fax.(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queensch.com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친유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516)277-1103, Cell.(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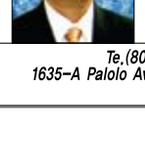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704)-841-0821, Fax.(704)841-1625
목사관: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부(영어): 오전 10시, (한어): 오전 11시
유치, 유년ㄴ부: 오전 10:00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410)337-9448, 882-0181, Fax.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융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타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l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s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토,주일)
Tel.(410)203-0516, Fax.(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
Tel.(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열린)
Tel.(253)535-6207, 531-8424
Fax.(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영어예배: 오전 9:30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밤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253)536-6675, Fax.(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피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젊은이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kpcaz.com
Tel.(480)726-0191, Fax.(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860)643-4738, Fax.(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투고칼럼 · 미국 이민목회를 하며

큰 물고기 큰물에 산다

김태용 목사
(미조리주, 한인영광교회)

미국에서 10여 년 넘게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따님을 만나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 생활하는 고등학교학생입니다. 왜 미국이 좋은가 물은 질문에 첫 번째 대답이, "나라가 커서 좋아요"라는 말이었습니다.

삼천리반도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52개 주 가운데 하나와 비슷한 영토를 가지고 있지요. 그곳 대한민국에서 자라 그곳에서 생활하던 것을 뒤로 하고 태평양을 건너 이곳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 누구나가 느끼듯 '큰 나라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 낯선 땅에서 이민목회가 쉽지 않다는 이민선배님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인데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며 목회의 첫발은 내딛였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떠 맡겨주셨다고 말해야 되겠죠.

한국에서 지하실바닥부터 시작한 개척교회 15년을 지내면서 주님은 작게나마 예배당 건축까지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사역을 위하여 "가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지평선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달리며, "이 땅을 나의 손에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새롭게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다짐해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으로 미국 땅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 자기에게 유익하면 "미국에 사니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 자기에게 유익을 만들 수 있다면,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이니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 말로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한국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경계하는 이민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까지 번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영원한 가족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야 할 교회의 만남이 잠시 보고 안볼 사람들의 만남보다 더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 밖 사람들은 서로 가지고 있는 앙금도 술 한 잔하며 털어버리는데, 상처난 크리스천들의 앙금은 천국에서조차 풀지 못할 것 같은 응어리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그마 한 말에도 상처주고, 상처받는 깨지기 쉬운 질 그릇 같은 모습이 이민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유와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너 머나먼 이국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텃세를 받을 수 있는 처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미 악한 세상을 떠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세상의 텃세를 받을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한 가지는 텃세를 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텃세를 부리는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 가운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아메리칸드림을 가슴에 품고 달려왔습니다. 누구나 느꼈듯이 큰 나라인 미국 땅에 발을 딛였습니다. 이제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작은 어항을 벗어나 큰 바다에 던져진 큰 물고기처럼 큰물을 만난 큰 물고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직장선교를 할 때의 일을 회상합니다.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려움이 한 둘이 아니지요. 회식, 잔업, 특근 등으로 교회에 갈 시간들을 방해할 때,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 안 들을려면 직장 그만둬!" 격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그런 소리들을 때마다 마음 깊이 담대하게 외치며 선포하라고 힘을 주었습니다. '까불지 마세요. 당신도 나 때문에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도 나 때문에 잘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장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로 그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천국이라는 큰물에 사는 큰 물고기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얼마전 한국 TV에서 나오는 한 사극 중에서 왕과 신하의 대화가 마음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숲은 보고 숲 속에서 썩어가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보지 못한다." 겉만 바라보고 태평세월이라고 좋아하는 신하의 말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어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신하를 향해 왕이 하는 말입니다. 큰 물고기의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과의 다른 모습이겠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바닷가에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참조, 왕상4:29). 왕이 된 솔로몬은 부족한 자신으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올바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다른 것보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은혜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기 짝이 없어 실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있어 이 넓은 땅으로 오게 하시고, 귀한 영혼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텃세로 인해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속 좁은 작은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이민목회자들과 가족들이 병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치유와 회복을 베푸신 예수님의 마음으로만이 그들과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변화된 큰 물고기 뱃속을 생각하며, 미국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는 넓은 마음을 가진 큰 물고기가 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이민목회를 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큰물을 바라보고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이라는 큰물에 사는 큰 물고기입니다. 이제 큰물에 사는 큰 물고기의 마음을 가지고 다 품고 입안에 넣을 수 있는 큰 물고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물고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편지

우간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사43:11-13).

동역자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이곳은 예년보다는 늦었지만 완연히 건기로 접어들어서 날씨가 더워진데다 흙먼지가 자욱하고 들판들의 풀들도 말라가며 나뭇잎들도 말라서 낙엽으로 쌓이는 것이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강추위는 조금 물러났겠지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2012 겨울 진료팀 39명이 방문하여 수술과 일반 진료, 그리고 어린이 사역 및 제반 활동들을 하고 막 떠났습니다. 4000여명의 일반 진료와 59명의 수술진료를 수행하였고 사정상 못 다한 부분들은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장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서 더욱 죄송하였지만 주께서 친히 치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곳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이, 한국에서의 일상에서 의미있게 적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료기간 중인 23일에는 소로티 병원장과 의료진들과 함께 모여 의과대 개설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이 자리에서 소로티병원과 쿠미대학교 간의 MOU도 사인을 하였습니다. 이들 문서와 함께 지금까지의 경과를 이곳 우간다 의사협회(보건부를 대신한 검증단체)에 제출하였고, 교육부로의 추천서를 받아서 교육부 인가를 받는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 과정이 빨리 해결되어야 3월부터 광고와 함께 신입생 모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주께서 세밀히 간섭하시사 진행될 수 있게 힘과 뜻을 모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신 덕분에 태양광 파넬을 실은 컨테이너가 지난해 12월 11일 부산항을 출발해서 이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케냐 뭄바사 항에 도착해서 이곳 쿠미까지 육로로 와야하는데 하역이나 수송 및 통관 등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수송과 설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해 주신 아스트라제네카, 제이오텍, 대덕한빛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의 설치를 맡아주실 홍명철선교사님에게도 지혜를 주시사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학교의 모든 활동을 잘 뒷받침하는 설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인근의 두 도시인 음발레와 소로티에 컴퓨터학과와 문헌정보학과를 개설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우선 소로티지역만 개설하고 음발레는 8월 학기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로티센터는 이사를 잘 마쳤고 곧 컴 시설 등을 설치해서 시작할 것입니다. 컴퓨터학과가 추가됨으로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들도 더욱 활성화 되고, 지역의 필요를 채우고 진정한 기독 청년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에 힘을 쏟을 정유철선교사님을 위해 더욱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충남대 강 호 교수(환경공학과), 윤기관 교수(무역학과) 등이 방문하셔서 특강도 해주시고 특히 강 교수님은 지역의 필요에 중, 소규모 바이오매스(개스) 프로젝트를 추진해보기로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쿠미대학교가 지역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인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잘 연결되기를 기도해주십시오.

또 대전의 도원 엔지니어링팀이 방문하여 학교부지와 시설현황을 돌아보고 학교의 건축계획과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팀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잘 계획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팀이 이 우간다를 위해 감당해야할 사역들에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이종익 회장님과 팀을 인솔하여 방문하신 최부사장님을 비롯한 팀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관은 일단 1층만이라도 완공하여 사용하면서 의대 일반실습실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지난 주 중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건축재정이 모자라지만 이 부분까지도 주께서 아시므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대 강의동을 건축한 건축회사가 맡게 되었는데 14주 예정기간에 잘 마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3층 건물인 이 과학관이 완공되어 모자라는 사무실들과 강의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학기가 시작되는데 모든 교수진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학기에 시범적으로 개설할 한국어강좌를 준비하시는 김영신선교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한국어강좌에 대한 강남대학교의 지원도 적절한 시기에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세밀히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부터는 쿠미대학교의 전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매주 두 차례 화, 금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찬양과 기도, 예배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를 주관할 교목과 모든 선교사님들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사 잘 감당할 수 있게 특별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현황은 카페 http://cafe.godpeople.com/uganda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보시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박시원간사님(국제의료협력단:010 4587 2537)께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도 기쁜 마음으로 소식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내내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간다 쿠미땅에서 쿠미프로젝트 김선영 선교사 드림

이메일: sykim@cnu.ac.kr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11:45
헌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박헌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찬 양 예 배: 오후 3:30
Tel.(213)413-1600, (F)(213)413-1911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www.laopendoor.org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희민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23)939-7323, (F)(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목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213)215-8523, Fax.(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30
주일2부 예배 : 오전 9:1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10
(Holywave:영어예배)
(KDC:한국어예배)
주일4부 예배 : 오후 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3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11:00
주일3부예배:오전 10:50
새 벽 기도회:오전 6:00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 최태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213)483-6625, Fax.(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통예배: 오전 9:30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323)466-1234, Fax.(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 림 교 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젊 은 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새벽5:30(월-금), 6:00(토)
Tel.(626)793-0880, 0200 Fax.(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주 일 학 교: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비전Acts 1:8 새벽기도: 오전 6:30(토)
중,고,대,청년부: 오후7:30(금)
www.samsungchurch.org
Tel.(562)690-9800, Fax.(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정명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ijoopeacechurch.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2:30(영어)
주일예배 5부: 오후 2:00(청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6:30(토)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2부 대 예 배: 오전11:15
주일영어예배: 오후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 김영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00
영어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15(월,금)
Tel.(818)363-5887, Fax.(818)368-9883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오후예배: 오후 1:45
금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5:30
교육부주일예배 : 오전 11:00
Tel.(818)249-2871, Fax(818)249-0516
www.laapc.org
2720 MontroseAve. Montrose, CA 91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한종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
(화-토)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창 대 교 회

담임목사 : 이춘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영어)
중고등부성경공부: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 요 찬 양: 오후 7:30
www.gpc.com
Tel.(909)388-2940, Fax(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dino, CA 92408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15(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아빠의 선물 (3)

정정숙 박사
(패밀리터치 원장)

죽음,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자와 협상하는 단계입니다. 절망의 분노 뒤에 환자는 절대자 앞에서 조건을 내걸며 협상을 벌입니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북한 선교와 중국 선교를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자신을 드리는 결단은 좋지만 '설령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믿음은 마음 한구석에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침체의 단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소용없고 속수무책으로 여겨질 때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회의감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도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기간에 썼던 일기입니다.

신년 초부터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우울할까? 새로이 힘차게 일어나도 부족할 때에 기대도 희망도 없이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싫다. 사역에도 의욕이 없고 기쁜 일을 보아도 슬픈 일을 보아도 무감각하다. 공중에 붕 떠 있는 기분과 어지럼증이 나를 괴롭힌다. 일어나고 싶지도 않다. 남편을 간호할 힘도 아이들을 보살필 힘도 남아있지 않다. 피곤이 온 몸을 휘감는다. 이렇게 처져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자꾸만 기도가 입속을 맴돈다. "주님, 제게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영원히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 저 깨우지 마세요.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 날도!"

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남편의 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부부도 몇 번의 침체기를 거쳤습니다. 어떤 때는 사흘, 어떤 때는 일주일이 걸리기도 했고 한달이나 깊은 수렁에 빠져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와 남편은 결국 이 침체기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아,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구나!' 인정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소생시키시겠지.. 회복시켜주시겠지'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침체기를 겪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다윗도 겪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과 43편을 반복해서 읽으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낙망과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만이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여사가 말한 죽음의 5단계 중 마지막은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자인 스캇 펙 박사는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 안에 빛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문턱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자신의 애착과 고집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용은 패배가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변화시킬 수없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분의 선하심에 나를 맡기고 나의 상황을 맡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수용은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과 죽음, 상황과 사건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수용의 단계에 들어서면 자유를 경험합니다.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어떻게 맞고 보낼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스캇 펙 박사는 자신의 환자들이 '수용'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할까? 그렇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죽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다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는 죽음에 대한 깊은 사색은 우리를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색이 우리를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한사코 피하려고만 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능한 한 빨리 죽음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들의 심리적, 영적인 성장에 커다란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직면했을 때 좋은 점은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스캇 펙 박사의 다음과 같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죽음의 교훈, 즉 우리가 살고 사랑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시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생을 최대한 충만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쪽 어깨 위에 짊어진 죽음의 실체를 부인하고 당당하게 직면하지 않는다면 죽음이 주는 지혜로운 교훈을 스스로 버린 결과 현명한 지식을 가지고 충만한 사랑을 할 수 없게 된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고 변화하는 삶의 본질을 외면해버린다면 우리는불가피하게 삶으로부터 도피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부부는 남편이 근위축증 선고를 받은 때부터 8년이란 기간 동안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겪는 정신적 심리적인 죽음의 5단계 과정을 모두 거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단계들을 자연스럽게 밟아나갔다는 사실입니다. 2003년 4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우리는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죽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얼마 전 내가 죽는 꿈을 꾸었소!"

▲웹사이트: familytouchusa.org

〈다음호에 계속〉

선교 편지

차드

하늘 길이 열리고

엊그제 독일에서 온 디구나(좋은소식)선교회 디렉터랑 방송국이 세워질 곳에 다녀왔습니다. 유럽에 폭설이 내려 공항이 폐쇄되어 올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 길을 열어 그가 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는 저희와 함께 동행해 방송국이 설 자리를 둘러보았습니다. 넉넉한 대지와 우물, 선교적으로 중요한 위치, 그리고 현지 교인들이 자원하여 벽돌을 굽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초 30미터 송신탑을 60미터까지 높여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럽교회들의 선교 열정이 식어 당장은 힘들지만 일, 이년 안에 30미터를 더 중축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계십니다. 사막에 길을! 불가능해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하나씩 현실화시키시는 것을 목도하며 이 길이 주님께서 저희를 차드에 부르신 이유임을 느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43:19). 생명의 소리가 달려갈 전파의 길이 하늘에 열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와 같이 보로로종족 사람들 가운데서도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벽돌 굽기가 완성되는 다음 주 중 스튜디오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나미FM 라디오 방송국 공사가 본 궤도에 오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더욱 무릎으로 서겠습니다. 함께 무릎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해주셔서 저희들의 건강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직은 쌀쌀한 새벽 날씨인데도 모기장 밖을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모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자칫 게으름과 영적인 무기력으로 빠질까 걱정입니다.

내가 길이요. 길,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어디쯤 걷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잦은 장거리 여행을 통해 길이 주는 의미를 매일 되새기고 있습니다. 바이나마르로 가는 길은 아주 먼 길은 아니지만,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푹푹 빠지는 모랫길, 냇물을 건너야 하는 길, 위험한 나무둥치가 솟아난 길, 온통 먼지가 날리는 길을 지나야 합니다.

모랫길에서는 절대 멈춰서는 안됩니다. 자칫 멈추기라도 하면 모래수렁에 바퀴가 빠져 영영 빠져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 타이어의 공기를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이어와 모래의 닿는 면적이 많아져 엔진의 힘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길에도 모래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 없는 마른 수렁에 빠져서 꼼짝 못할 때는 바람을 빼야 합니다. 허풍이나, 허영심, 자기과신, 그리고 자기과시 같은 공기를 빼지 않으면 결코 그 모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가속페달을 힘껏 밟으면 밟을수록 바퀴는 더 깊이 빠져듭니다.

물 없는 모래수렁은 나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정체상태에 빠질 때 나를 돌아보고 내 속에 가득한 공기를 빼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물구덩이를 세 군데나 건너야 합니다. 모래수렁보다 더 위험합니다.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보다 더 깊은 곳도 있고, 얕지만 깊은 수렁이 도사리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 빠지면 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큰 낭패입니다. 방법은 먼저 건너간 사람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 소견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끝은 반드시 허무와 무의미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먼지가 가득한 길에선 천천히 달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에어컨을 켜고 문을 닫으면 차 안에 있는 나는 먼지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일으킨 먼지 때문에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사람, 자동차를 탔어도 창문을 열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시야는 가려지고 호흡은 힘들어 집니다. 먼지는 안개보다도 더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도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만 합니다. 여러 번 대형 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불빛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인생길은 남을 배려할 줄 알 때 내가 안전하고 행복한 길임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길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보혜사(保惠師) 의 정확한 뜻은 '함께 있어 주는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요14:16).

길의 위험과.....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인생길에서 만났던 숫한 위험 중 하나는 '길의 위험'이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는 외진 길이요 파선의 위험이 있는 험한 바다길이요 배고픔과 추위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간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전에 걸었던 그 길이였지만 목적과 의미가 달랐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 때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난 후 그의 길은 달라졌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 그의 달려갈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 길 끝에 상주시는 분이 그를 위해 예비한 썩지 않고 시들지 않은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은 왜 가장 먼저 길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두 가지보다 생명이 더욱 귀중한 것 아닌가요? "내가 곧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라고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묻고 답을 찾는 묵상을 하며 다녀왔습니다. 원초적인 도로에 가까운 이곳을 달리게 될 때,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지한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로 데려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구덩이 빠지는 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이 길입니다. 그의 영이 그 길의 동행자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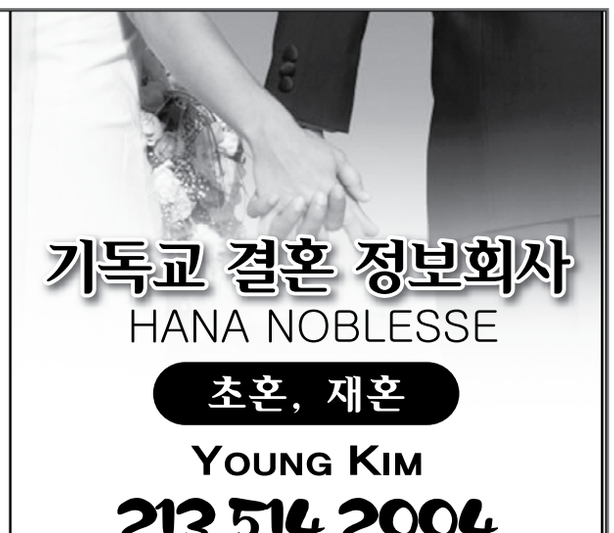
조승호 선교사
이메일: pray4chad@gmail.com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계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물티슈 판매
TOLL FREE: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TEL. 800.347.7057
워싱턴DC 지사 TEL. 800.228.2928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9. 사모의 인격 가꾸기(2)

성도들이 바라는 사모의 인격은 천사와 같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선 자신의 특징이나 취미는 모두 무시되어집니다. 온유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부드럽고 무엇이든 다 받아드릴 수 있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란 자신의 고집과 아집은 모두 없어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고집과 특징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는 온유와 충성 보유
처음과 끝이 똑같은 성실로 다듬어진 인격 갖춰야

가를 민감하게 판단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이란 진돗개나 세퍼트처럼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돗개는 주인이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죽일 듯이 달려들고 열심히 짖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좋아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곧 충성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서 좋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의 기준과 목표가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그 명령에 절대복종하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사람이기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겠으나 그의 마음만은 주님께로 향하여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종의 특징입니다. 충성이란 자기의 상관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분께만 있습니다.

어떤 사모들은 지나치게 하나님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것 같아도 가까이 가보면 사람으로서 기본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기본을 잃지 않습니다. 지나치리만큼 영적으로 깊다고 하는 사모들 중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하여 교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모들에게는 성실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성실이란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성실의 어원을 살펴보면 '시네세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옛날 중세기에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 가끔은 실수를 하여 도자기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짝 땜질을 하여 다시 칠을 하고 다듬어 상품으로 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런 물건에는 '시네세라'라는 마크를 붙이지 못하고 그냥 내놓습니다. '시네세라'라는 말은 한 번도 도자기를 굽다가 떨어뜨리지 않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믿어도 된다는 의미이지요. 이 마크가 붙어있는 물건과 붙어있지 않은 도자기와는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실(sincere)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편지나 서신을 쓰고 난 후에 마지막에 사인과 함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를 바가 없으니 믿어도 된다는 의미지요.

이처럼 사모의 인격은 성실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명설교를 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성실이 밑받침하지 못하면 영적권위는 상실됩니다. 한국 초대교회시절에는 목사라고 하면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명칭이며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우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를 두려워하기는커녕 무시와 천대를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성도들은 목사나 사모를 향해 유능한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성실을 기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목사는 이래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할 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서서 "목사도 사모도 사람인데 그런 실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도 사모도 모두 인간이므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어느 신학교 교훈을 보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이렇게 붙어있기는 하지만 갈수록 실망을 안겨주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불거져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현대교회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해야 하는 빛의 사명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신용도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됩니다.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는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첫째 물질에 깨끗하라, 둘째 명예욕에 넘어가지 말라, 셋째 이성의 유혹을 조심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1.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라 2. 사람 앞에서 성실하라 3. 물질 앞에서 성실하라"입니다. 이것은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에 대한 유혹에 조심하던 목사님이 돈에 눈이 어두운 사모에게 붙잡혀 결국에는 물질의 종이 된 비극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성보다 더 강한 유혹이 물질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목회는 그래도 목회자 노후대책에 대한 예산도 있고 사모에 대한 예산도 이제 조금씩 눈을 뜨고 있지만 이민목회는 대형교회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사모는 교회의 경제를 위해 직장을 놓으면 안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사모가 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녀교육비는 말할 것도 없고 노후대책은 그림의 떡입니다. 주일에는 온갖 궂은일은 사모가 다 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보면 청소와 쓰레기는 의례히 목사님부부 담당입니다.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요즘엔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섬기는 목회, 머슴목회에서 대우받는 목회를 하고 싶어서 가고자하는 심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성실한 목회자의 가는 길은 이렇듯 어렵습니다. 이런 목회자와 함께 사는 사모들은 더 고달픕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이런 사모들을 향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 발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발을 씻겨 주시려고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거듭나야 하리라(요3:1-15)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두 번(육제적 사망, 유황불 사망) 죽고 두번 태어나면 한번(육체적 죽음) 죽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한번의 죽음(육체적 죽음)만을 갖게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첫째 '위로부터' 의미와 둘째출생의 의미가 합성된 단어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새생명의 선물입니다. 왜 거듭나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엡2:1). 둘째는 우리의 아버지가 욕심과 마귀였기 때문입니다(요8:44). 거듭나는 요소에 대해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씻음을 의미하고 성령님도 회개의 영으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완전히 씻음을 믿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요3:16-21)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들었던 광야의 뱀"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성경전체의 핵심구절 요3:16 "하나님의 사랑이야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민수기21장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로 하여금 장대위에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 들게 하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것과 병이 낫는 것과는 과학적 관계가 아니라 약속의 관계였습니다. 누구든 관계없이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이와같이 예수님과 우리들의 구원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약속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수 아름다운 퇴장-세례 요한(요3:22-36)

본문은 광야의 나팔로 살았던 세례요한이 조용히 성경역사 속에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 "메시야가 아니라, 광야의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세례를 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한 것이 세례요한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는가보다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석자를 남기려고 하지만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이 될 때 우리도 요한처럼 인생의 아름다운 퇴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늘보좌의 심판대에 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 세자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일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일을 했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목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4:1-19)

모든 인생이 겪는 갈증은 두 종류입니다. 육체적 갈증과 영적 갈증입니다. 영적 갈증은 오늘날 선진국일수록 더 채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사는 미국사회도 매일 크고 작은 총기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갈증이 점점 더 커져갈까요?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얻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렘2:13). 없어질 세상적인 것들은 점점 더 큰 영적 갈증을 우리에게 줍니다. 영적 갈증의 해결은 오직 영적 생수되신 예수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생수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만난 후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것은 점점 더 큰 영적 갈증만 가져옵니다.

금 영과 진리의 예배(요4:20-42)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왜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여인이 영적 갈증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아킬레스건은 남편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다섯 명이나 됐지만 자기 남편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쉬는 뜨거운 정오에 남들의 눈을 피해 혼자 물 길러 와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답답해하고 있는 "예배의 문제"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의 영적갈증이 혹시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시온산에서 드리지 않아서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는 어디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형식 때문에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다른 말로 "회개의 영"이십니다.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우뚝 선 예배여야 합니다.

토 생명되신 예수(요4:43-54)

오늘 본문은 헤롯왕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쳐주시는 두 번째 표적기사입니다. 이 표적이 주는 핵심복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듣고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입니다. 왕의 신하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여기서부터 기적과 축복은 시작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히4:16).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믿으시면 말씀은 곧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1)감각적 한계성을 믿음으로 넘어서십시오. 우리의 감각은 할 수 없다, 가능하다, 스스로 느끼고 결정하게 합니다. 2)공간적 한계성을 믿음으로 넘어서십시오. 아들은 가버나움에 누워있습니다. 예수님은 약 32킬로 떨어진 가나에 계십니다. 그러면 병을 고칠 수 없나요?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청
주일낮가족예배1부: 오전 7:40
주일낮가족예배2부: 오전 9:30
주일낮가족예배3부: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82)31-984-2939, Fax.(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Tel.(062)523-9419, Fax.(062)522-4834
500-170 광고광역시 북구 운암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03)3208-8491~5, Fax.(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82)2-440-9000, Fax.(9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02)2645-6567~9, Fax.(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22-3 (158-053)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82)51-740-4500, 4556~8, Fax.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자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겸일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강 사•

김성길 목사
• 시은소교회
• 주강사

김종준 목사
• 꽃동산교회
• 주강사

장영춘 목사
• 발행인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황의영 목사
• SBM 대표

천성덕 목사
• 캐나다대회장

이영섭 목사
• 볼티모어교회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김승천 목사
• 퐁뇌프 장로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김만형 목사
• 친구들교회

김혜천 목사
•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춘식 목사
• 김제 중앙장로교회

김주경목사
• AMNOS미니스트리대표

주제 :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 6:4-9)

"Hear, O Israel"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 일 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9박 10일)

▶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Il-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

■ 참석대상

1)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9박 10일(세미나 등록비, 성지순례 제반비용, 호텔 숙식비 포함): 1400불
* 성지순례 코스 : 십자가의 길(Via Dolorosa), 감람산, 여리고, 사해, 갈릴리호수 등
* 항공표는 별도 개인 구입
* 4월 9일 예루살렘(Tel Aviv Ben Gurion Airport: TLV) 도착하면 현지공항에서 호텔까지 픽업해 드립니다.

■ 항공권 문의: 세계여행사(World Travel Bureau, Inc.)

1-800-777-9136 담당자: 리디아 정
NY: (212)917-0022, CA:(562)403-2277

■ 등록마감: 2013년 2월 28일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재)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TEL. (02)583-9136~8 / Fax 588-0709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 ( )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등록금	목회자	
	평신도	
X 명		
소계		
선금		CK#
잔금		CK#

본인은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 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잔금을 등록만기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 미주크리스천신문사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성지순례 세미나 등록비'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성지에 많은 이민 목회자들이 방문하여 지형적, 역사적 사실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더욱 귀한 사역자가 되실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